

碩 士 學 位 論 文

島山 安昌浩의 教育思想과 現代的  
意味 考察

指導教授 韓錫祉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崔 昌 範

2003년 8 월



<국문 초록>

## 도산 안창호의 교육사상과 현대적 의미 고찰

최 창 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지도교수 한 석 지

도산 안창호는 1878년에 태어났다. 그는 일생을 민족 독립 운동에 바친 애국적 정치가였으며, 국민 교화와 계몽에 헌신한 성실한 교육자였다. 또한 민족 개조 사상 등을 제시한 뛰어난 사상가였으며, 성실한 자세와 정직한 마음씨를 가졌던 인격적 민족 지도자였다. 도산의 이러한 다양한 활동 중의 핵심은 교육이다. 그는 교육을 통해서 민족을 개조하고, 민족의 힘을 길러,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이루고 자주 국가를 건설하려 했던 교육 실천가였다.

본 연구는 한국 근대 교육의 선각자인 도산 안창호의 교육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산의 체자인 주요한, 이광수, 장리욱 등의 저술과 도산 자신의 연설문 및 서한문 등을 1차 자료로 하고, 그 외 도산 관련 단행본 및 논문 등을 2차 자료로 하는 문헌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도산의 삶 속에서 교육사상을 찾아내고 현대적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 I 장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밝히고 연구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 II 장은 도산 교육사상의 형성 배경과 기초로써 도산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사상적 배경, 사상적 기초를 고찰하였다.

제 III 장은 도산 교육사상의 형성 배경과 기초를 근거로 하여 도산의 교육사상을 민족 개조 사상, 힘 사상, 민족 주체 사상으로 제시하고 고찰하였다.

제 IV 장은 도산 교육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제 V 장은 결론 부분으로 도산 교육사상과 현대적 의미를 고찰한 결과를 정리하여 결론으로 마무리하였다.

---

\* 본 논문은 2003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위와 같은 연구 절차에 따라 고찰한 결과 도산 안창호의 교육사상과 현대적 의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 개조 사상이다. 민족 개조 사상은 우리 민족을 능력 있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 자기 자신부터 개조하여 민족 전체를 개조하자는 것이다. 도산은 우리 민족성의 개조를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 무실·역행·충의·용감의 4대 정신을 제시하였다. 도산의 민족 개조 사상은 앞으로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 학교 교육에서 정직성을 재인식해야 한다는 의미, 노작 교육과 가치관 정립을 강조하는 의미, 숭선 수범을 강조해야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둘째, 힘 사상이다. 도산은 민족 부흥의 핵심은 힘을 기르는 것이라 했다. 힘을 기르기 위한 원리로 건전 인격의 형성과 공고한 단결의 2대 원리를 제시했고 그 바탕 위에 민족 3대 자본 축적을 강조했다. 도산의 힘 사상은 현대 교육에서 전인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와 교육을 통해서 민주 시민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미, 동맹 수련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셋째, 민족 주체 사상이다. 도산의 민족 주체 사상은 독립 정신이며, 책임 정신이고, 민족에 대한 실제상의 주체가 되자는 사상이므로 주인 정신을 의미한다. 진정한 민족의 주체 의식을 확립하자는 것이다. 도산의 민족 주체 사상은 민족 주체 의식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미와 인간의 자기 회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늘날 우리 교육에는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러한 때에 도산 교육사상의 현대적 의미는 일선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 <목 차>

I. 서론 .....	1
II. 도산 교육사상의 형성 배경과 기초 .....	3
1. 형성 배경 .....	3
2. 사상적 기초 .....	17
III. 도산의 교육사상 .....	24
1. 민족 개조 사상 .....	25
2. 힘 사상 .....	37
3. 민족 주체 사상 .....	47
IV. 도산 교육사상의 현대적 의미 .....	53
1. 민족 개조 사상의 의미 .....	53
2. 힘 사상의 의미 .....	55
3. 민족 주체 사상의 의미 .....	56
V. 결론 .....	58
참고 문헌 .....	61
영문 초록 .....	65

## I. 서론

도산 안창호(1878-1938)는 근대 우리 민족의 수난기에 태어나서 활동한 뛰어난 민족의 선각자였다. 그는 서구 열강들로 인한 대외적인 도전과 대내적인 분열 및 부패에 휩싸였던 조선 시대 말기(19세기 말)에 태어나서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수난의 역사를 온 몸으로 감당해야만 했다.

60평생을 오직 민족을 위하여 살고, 민족을 위하여 몸 바쳤던 도산에 대한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다. 첫째, 도산을 일생을 민족 독립 운동에 바친 애국적 정치가로 보는 시각이다. 둘째, 국민 교화와 계몽에 헌신한 성실한 교육자로 보는 시각이다. 셋째, 민족 개조 사상을 제시한 뛰어난 사상가로 보는 시각이다. 넷째, 성실한 자세와 정직한 마음씨를 가졌던 인격적 민족 지도자로 보는 시각이다.

그러나 도산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시각 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도산이다. 그는 교육을 통해서 민족을 개조하고, 민족의 힘을 길러 이 땅에 영구한 독립을 쟁취하고자 노력한 교육 실천가였다. 도산은 민족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학교를 설립하고, 단체를 조직하고, 정치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할 때도 가장 중시한 것은 교육 활동이었다.

도산 사상의 핵심은 교육사상이기에 근래에 들어서 우리 나라 교육사상사 및 교육사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개인이나 사회, 국가의 성장은 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 정보화 사회, 지식 산업 사회에서는 개인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경쟁도 치열해 질 수밖에 없으며 교육에 거는 기대도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실 붕괴’니 ‘교육 부재’니 하는 우려는 우리 나라 교육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나라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를 놓고 그 해결책을 강구함

에 있어서 위대한 사상을 남겨 놓은 교육사상가를 찾아, 거기에서 방향 제시와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봄은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에게는 교육의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교육사상과 실천 방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한 평생을 민족 교육에 헌신한 도산 안창호의 교육사상에서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근대 교육의 선각자인 도산 안창호의 교육사상과 현대적 의미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도산 교육사상의 형성 배경과 기초를 밝힌다.

둘째, 도산의 교육사상을 민족 개조 사상, 힘 사상, 민족 주체 사상으로 세분하여 고찰한다.

셋째, 도산의 교육사상인 민족 개조 사상, 힘 사상, 민족 주체 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고찰한다.

본 논문은 위에서 의도한 연구 목적을 규명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 방법을 위주로 하였다. 각종 문헌과 자료는 도산의 사료와 사상을 종합적으로 다룬 저서들과 도산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전기, 평전, 도산 사상 및 도산의 교육사상 연구와 관련된 논문 및 정기 간행물, 도산의 연설문 및 서한문 등이다.

## Ⅱ. 도산 교육사상의 형성 배경과 기초

### 1. 형성 배경

#### 1) 시대적 배경

도산이 출생한 19세기 후반의 우리 나라는 역사적으로(정치, 경제, 사회, 사상의 제 측면) 매우 급격한 변화를 보였던 시기였다. 국내적으로는 수십 년 간 이어진 세도정치의 부패로 민생이 도탄에 빠졌고, 국외적으로는 제국주의의 발호로 인한 외세의 침략이 노골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대원군이 과감한 개혁 정치와 쇄국 정책을 폈으나 집권한지 10년 만에 민씨 일파에 몰려 실각하게 되었다. 일본은 1875년 운양호(雲楊號) 사건을 구실로 위협 시위를 하면서 조선 정부에 협상을 요구하였다.<sup>1)</sup> 다음 해(1876년)에는 강화도조약(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되고, 1882년 제물포 조약에 이르자 잇따라 미국, 독일, 영국,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과도 통상 조약을 맺게 되는데<sup>2)</sup> 이것들은 물론 우리 나라의 자주적 선택에 의해서 추진 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원래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은 이질적인 다른 나라와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한다는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국제사회에 대하여 한 국가로서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하는 새로운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어야 한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당시의 문호 개방은 제국주의 일본의 군사적 위협 하에서 처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권 상실이라는 훨씬 심각하고 현실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

1) 운양호 사건(1875) : 일본 군함 운양호가 강화도에 접근하자 조선 군대가 자위 행위로 포격을 가함. 이를 구실로 일본이 조선 정부에 협상을 요구. 1876년에 강화도조약 체결 (3개 항구 개항 등 불평등 조약임).

2) 통상 조약 : 미국(1882년), 독일(1882년), 영국(1883년), 러시아(1884년), 이탈리아(1884년), 프랑스(1886년).

1896년 2월에 일어난 ‘아관파천’<sup>3)</sup> 후에 우리 나라를 둘러싼 열강의 세력 균형에 큰 변화가 생겼으며, 우리 나라에 대한 경제적 침탈이 심화되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동안 러시아를 비롯하여 구미 열강에게 광산, 철도 등 각종 이권을 침탈 당하거나 전제권으로 양여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열강들의 이권 침탈은 우리 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을 심화시키면서 또 하나의 위협으로 등장하였다.

당시 우리 나라에 대한 열강들의 이해 관계를 살펴보면, 제정 러시아는 극동에서 남하 정책을 시행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극동에 부동항과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나라를 속지 또는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을 노리고 있던 일본의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대립하게 되었다.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을 후원하였고, 프랑스는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밀착하였으며, 그 사이에서 미국과 독일은 필요에 따라 이해를 추구하여 이권 획득과 선교에 열중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자기 나라에 유리한 입장을 취하였다.

한편 이러한 외세의 위협을 맞아 위정척사를 부르짖는 세력이 대두됨에 따라 국론은 개화와 척사로 엇갈려 정계는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국권은 중심을 잃고 방황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 편승하여 침략적 야심을 품은 일본과 청,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은 마침내 전쟁으로까지 점화하게 되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지배 세력으로 남게 되어 1905년에는 을사조약 체결로 외교권을 박탈하고, 1910년에는 국권까지 빼앗아 이후 35년 동안을 식민 통치하게 된다.

이처럼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던 19세기 말에 도산 안창호는 1878년 11월 9일(단기 4211년, 무인년) 대동강 하류인 평안남도 강서군 초리면 7리 도룡섬에서 한 농사하는 집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sup>4)</sup>

7세에 부친을 여의고 조부 슬하에서 자라났다. 7-8세까지 가정에서 한문을 수학하고, 9-14세까지는 한문 서당에 다니면서 목동도 겸하였다. 14-16세 사이에 강서군 심정리에 머물면서 김현진(金鉉鎭)에게 유학을 배웠고 자기보다 서너살 맏이가

3) 아관파천(1896년) : 친러파 이범진 등이 러시아 공사였던 베베르와 공모하여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사건. 친러 내각 성립. 정부는 러시아의 간섭을 받게 됨.

4) 이광수(1998), 「도산 안창호」, 홍사단출판부, p.7.

되는 필대은(畢大殷)<sup>5)</sup>을 만나게 된다. 필대은은 근대 사상에 먼저 접한 사람으로 어린 도산의 가슴에 민족주의를 심어 주었다.<sup>6)</sup>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1894년에 16세였던 도산은 청일전쟁의 참화를 목격하고 필대은과 밤새도록 격론을 벌여 ‘외국이 마음대로 우리 강토에 들어와서 설레는 것은 우리 나라에 힘이 없는 까닭이다.’라고 결론을 얻었는데, 이는 곧 도산의 일생을 지배한 귀한 각성이었다.

1894년 동학 농민군의 봉기와 청일전쟁 등으로 격동과 혼란, 그리고 민족적 수모를 겪을 때 상경한 도산은 언더우드 목사<sup>7)</sup>가 교장인 구세학당 보통과에 입학하여 3년동안 신학문을 공부하였다. 졸업 후에는 조교로 임명되었고 기독교에도 입교하였다.<sup>8)</sup>

도산은 개화혁신을 주도하던 독립협회의 활동이 벌어지고 대한제국이 선포되던 무렵부터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치·사회 활동을 개시하였다. 즉 1897년에 상경하여 독립협회<sup>9)</sup>에 가입하였으며, 1899년 정부의 명령으로 독립협회가 없어질 때까지 필대은과 함께 평양에서 만민공동회의 관서지부를 발기하고 조직하면서 3년여 동안 경기, 황해, 평안도를 순회하며 정열적인 계몽 연설을 하였다. 특히 평양 폐재정에서 행한 연설은 도산의 명성을 전국에 떨치게 한 명연설로 칭송되었다.<sup>10)</sup>

그러나 독립협회 해산의 쓰라림을 안고 귀향한 도산은 1899년 강서군 동진면 암화리에 점진학교(漸進學校)를 세웠는데, 초등교육기관으로 서도에서 민간인이

5) 필대은 : 황해도 안악 사람으로 새로운 사상에 먼저 접한 사람으로서 소년 도산에게 계몽자가 되었고, 도산의 가슴에 민족주의를 심는데 중요한 영향을 줌. 도산이 서울로 가기로 결심한 것, 독립협회에 가입한 것, 미국 유학을 결심한 것, 신민회 활동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침.

6) 주요한 편(1999), 「안도산 전서」, 흥사단출판부, pp.42-43.

7)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 미국 기독교 북장로회 선교사. 나중에 연희전문학교(연세대학교 전신) 설립자요, 초대 교장. 1895년에 정동에 ‘구세학당’을 세웠는데 이 학교가 언더우드 학당 혹은 밀러 학당이라고 불리며 1901년에 연동으로 교사를 옮기고 경신학교라고 함.

8) 윤병석(2002), 「민족 수난의 지도자 도산 안창호」, 도산사상연구회, p.7.

9) 독립협회(1896-1898) : 정부의 외국 의존 정책에 반대하는 개화 지식인층이 자주 독립과 내정 개혁을 표방하고 활동한 정치 단체. 서재필을 중심으로 민주·민권 독립 사상의 고취에 노력함.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시국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였으나 황국협회의 테러 이후에 해산됨. 1899년까지 만민공동회의 이름으로 존속함.

10) 폐재정 연설 : 평양 감사 조민회 등 수 많은 군중이 모인 평양 폐재정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한 첫 연설. 18조의 폐재와 18조의 불쾌를 열거하며 민중의 새로운 각성을 호소함.

세운 한국 최초의 사립학교인 동시에 또한 남녀공학을 실시한 최초의 소학교였다.<sup>11)</sup>

교육 입국의 큰 뜻을 품은 도산은 1902년 9월 ‘교육학을 전공하여 교육자가 되겠다.’는 청운의 뜻을 품고 부인 이혜련(李惠鍊)과 함께 하와이를 거쳐 미국 상항(LA)에 도착하였다. 그 곳에서 미국인 의사 가정의 고용인으로 일하면서 우선 공립소학교에 입학하여 어학 공부에 열중하였다. 얼마 후 도산은 나성(로스엔젤리스) 근방으로 이사 가서 하변(Riverside)에 거주하면서 가사 고용인으로 일하게 되었다. 어느 날 도산은 길가에서 한국의 인삼장수 두 사람이 상투를 마주 잡고 싸우는 광경을 목격하고, 동포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접함으로써 동포들로 하여금 문화 국민다운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국민의 수치다. 미국 사람들은 한국인을 야만으로 보고 한국은 독립할 자격이 없다고 볼 것이다. 이들을 잘 지도하여 모범이 되게 하여야만 한국이 독립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sup>12)</sup>



그리하여 도산은 당초의 공부 목적을 중단하고 재미 동포들의 조직과 계몽에 정력을 바쳤다. 1903년 9월 23일에 한인친목회를 조직하고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었는데 이 곳 한인 사회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운동을 일으켰다.<sup>13)</sup> 1905년 4월 5일에는 한인친목회를 발전시킨 공립협회<sup>14)</sup>를 창립하여 생활 향상과 계몽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고, 공립협회는 다시 대한인국민회<sup>15)</sup>로 발전하게 되었다. 공립협회가 추진하던 중요 사업의 하나는 기관지 ‘공립신보’의 발행이었다. 공립신보는 본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제의 침략 행위를 보도하여 그 불법성을 규탄하는 한편 당면 급무를 개화 혁신을 위한 근대 교육의 보급과 실업 진흥, 그리고 조국의 근대적 독립을 위한 국권 수호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를 강조하는 기사와 논설을

11) 손인수(1985), 「한국 개화 교육 연구」, 일지사, p.110.

12) 주요한 편, 전계서, pp.67-68.

13) 윤병석, 전계서, p.8.

14) 공립협회 : 1905년에 조직된 항일 운동 단체. 재미 동포들의 생활 향상과 계몽 활동을 위한 단체. 언론을 통해 항일 운동 전개.

15) 대한인국민회 : 1911년 11월에 대한인국민회 중앙 총회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려 도산을 총회장으로 선출함. 대한인국민회는 북미, 하와이, 시베리아, 만주 지방 총회를 합친 총연합체임.

집중 게재함으로써 해외에서나마 민족 언론을 주도하였다.

이 무렵 조국은 러일전쟁<sup>16)</sup>에서 승리한 일본에 의하여 강제로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어 외교권마저 박탈됨으로써 풍전등화의 위기로 기울고 있었다. 이를 이국 땅에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도산은 1907년 동경을 거쳐 귀국 길에 올랐다. 동경 체류 중 한국인 유학생 단체인 태극학회<sup>17)</sup>에서 애국 웅변으로 청중을 감격케 하였다.

1907년 4월 초에 도산의 발기에 의하여 양기탁, 전덕기, 이동휘, 이동녕, 이갑, 유동설, 안창호 등 7인이 창건 위원이 되고, 노백린, 이승훈, 안태국 등이 중심이 되어 비밀결사인 신민회를 조직하였다.<sup>18)</sup> 신민회의 조직은 비밀이었으나 그 활동은 공개적이었다. 신민회의 대표 사업으로는 평양의 오산학교<sup>19)</sup>와 대성학교<sup>20)</sup> 등의 학교 설립, 자기회사 설립, 그리고 서울, 평양, 대구에 설치한 태극서관이라는 출판사 등이었다. 또한 1909년에는 청년학우회를 조직, 지도함으로써 장래에 필요한 민족 운동의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1909년 10월 안중근 의사<sup>21)</sup>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사건으로 일본통감부의 검거령에 의거 도산은 대성학교에서 체포된 후 서울 용산 현병대에 수감되었다가 2개월만에 석방되어 망명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sup>22)</sup>

1910년 4월에 다음과 같은 ‘거국가’를 남기고 망명길에 올랐다.

1.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잠시 뜻을 얻었노라/ 까불대는 이 시운이/  
나의 등을 내밀어서/ 너를 떠나가게 하니/

- 
- 16) 러일전쟁(1904) : 조선을 사이에 두고 대립하던 러시아와 일본이 그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일으킨 전쟁.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조선에서의 독점적 위치를 확실히 굳힘.
- 17) 태극학회 : 동경에 와 있던 유학생들이 조직한 애국 운동 단체. 정치 계몽 잡지 ‘태극학보’ 발간.
- 18) 신용하(1986), 「한국 민족 독립 운동사 연구」, 을유문화사, pp.17-18.
- 19) 오산 학교 : 남강 이승훈 등이 중심이 되어 1907년 12월 14일에 평안북도 정주에 세운 중학교급 학교. 지방 유지들의 후원을 받아 ‘강화의숙’을 개편하여 발전시킴.
- 20) 대성 학교 : 1908년 9월 26일에 도산의 발의로 평양에 설립된 중학교. 독립 운동에 헌신할 인재의 양성과 국민 교육의 사표가 될 자의 양성이 목표였음.
- 21) 안중근(1879-1910) 황해도 해주 출신.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의병을 일으켰으며 북간도를 거쳐 블라디보스톡에 망명하여 의용군을 조직, 일제에 항거함.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여 1910년 사형당함.
- 22) 이광수(1998), 전계서, pp.53-59.

- 간다한들 영 갈소나/ 나의 사랑 한반도야.
2. 간다 간다 나는 간다/너를 두고 나는 간다/  
 지금 너와 작별한 후/나의 몸은 부평 같이/  
 어느 곳에 가 있던지/너를 생각할 터이니/  
 너도 나를 생각하라/나의 사랑 한반도야/
3. 간다 간다/나는 간다/너를 두고 나는 간다/  
 지금 이별할 때에는/빈 주먹만 들고 가나/  
 이 후 성공하는 날엔/기를 들고 올 것이니/  
 훗날 다시 만나 보자/나의 사랑 한반도야<sup>23)</sup>

망명 길에 오른 도산은 유동열, 신채호, 이종호, 이강 등의 신민회 동지들과 일단 중국 청도에 모여서 청도회담을 열어 독립 운동의 방략을 논의하였다.<sup>24)</sup> 그 해 8월 국치 소식을 들으며 러시아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으로 건너가 그 곳에 먼저 활동하던 이강, 김성무, 정재관, 이갑 등 동지들과 함께 구국 계몽 운동을 벌이다가 1911년 3월 미국으로 건너갔다.

도산은 민족 운동 내지 독립 운동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하나같이 귀중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독립 운동의 완전 무결한 준비를 뜻하는 ‘민족 대업의 기초’로서 가장 귀중하게 추진시킨 사업은 인재 양성을 위한 홍사단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홍사단은 1913년 5월 13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조병옥, 송종익 등 8도를 대표하는 창단 위원이 중심이 되어 창단 되었다.<sup>25)</sup>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4월에 상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대한인국민회 대표로 독립자금을 모아 급거 상해로 가서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서리로 취임하였다. 도산은 실제로 임시정부의 행정수반으로서 연통제<sup>26)</sup>를 만들어 국내 국민과의 연락과 통치를 일부 수행함과 동시에 임시정부 신문인 ‘독립 - 후에 독립신문으로 고침’을 창간하는 등 맹활약을 하였다.<sup>27)</sup> 도산은 그 때 독립 운동의

23) 상계서, pp.60-61.

24) 주요한 편, 전계서, pp.142-143.

25) 도산사상연구회 편(1995), 「도산 안창호의 사상과 민족 운동」, 학문사, pp.98-99.

26) 연통제 : 상해임시정부에서 실시한 교통 연락 방법. 도산이 만든 안으로 각도에 총판, 각 군에 군감, 면에 면감을 두고 국외에는 민간 단체를 통하여 정부의 명령 전달과 연락 사무를 처리함.

27) 서영훈(1983), 「도산 안창호」, 홍사단출판부, p.40.

방략을 작성하였으며 대외 선전과 문화 사업에도 착수하였다. 1920년에는 흥사단 원동위원부를 조직하였고, 동시에 상해임시정부의 조직 강화와 독립 운동 중심 세력의 결합에 주력하였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1921년 5월에 임시정부에서 사임하였다.<sup>28)</sup>

1923년에 접어들면서 독립 운동 사상 최대 규모의 ‘국민대표자대회’를 개최하였다. 국내외 독립 운동의 대동 단합과 독립 운동의 중추 기관인 임시정부의 개편 강화를 시도하였으나 개조파와 창조파의 파벌만 증식시킨 채 무위로 종언하는 곤경도 맞았다. 그러나 도산은 조금도 좌절하지 않고 1923년에는 남경에 동명학원<sup>29)</sup>을 설립하였고 그 후 1년여에 걸쳐 미주를 심방하였다. 그와 전후하여 독립 운동 근거지로 이상촌 건설 사업에 수년 동안 노력하기도 하였다.

1927년 만주에서 독립군 단체들의 통일과 대독립당 결성을 토의 중 중국 경찰에 체포되어 20여일 만에 석방되었고, 1928년에는 한국독립당을 창당하고 대공주의(大公主義)<sup>30)</sup>를 선언하였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상해 홍구 공원 의거 직후 상해에서 일제에게 체포되어 그 해 6월 7일 본국으로 호송되어서 4년형의 징역 언도를 받고, 2년 6개월 복역 후에 1935년 2월 10일 병 보석으로 출감하였다. 도산은 출감 후 3남 지방과 관서 지방을 순회하며 은연중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수양동우회를 지도하였다. 도산은 중일전쟁이 발발하던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을 빌미로 다시 투옥되었다. 이듬해에 병 보석으로 출감되어 대학병원에서 입원 요양하였으나 1938년 3월 10일 파란 만장한 그의 애국적 일생을 마치고 순국하였다.<sup>31)</sup>

## 2) 사상적 배경

어떤 사람도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조나 분위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28) 신용하(1994), 「한국 근대의 선구자와 민족 운동」, 집문당, p.113.

29) 동명학원 : 1924년 중국 남경에 세움. 구미나 중국의 대학에 유학하려는 학생들에게 유학에 필요한 준비 교육을 시킴.

30) 대공주의(大公主義) : 도산이 1927년 상해에서 대공주의를 부르짖음. 대공주의는 두 측면을 갖고 있음. 하나는 인생관의 원리로서의 대공주의이고, 둘째는 사회 철학 내지 정치 사상으로서의 원리임. 대공주의는 민족의 자주 독립의 완성이라는 역사의 대명제에 대답하려고 한 것이며 사(私)에서 출발하여 민족이라는 대공(大公)에 도달하려는 것임.

31) 신용하(1994), 전계서, p.114.

는 없다. 인간은 그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조나 분위기 속에서 행동을 익히고, 생각을 가다듬어 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행동이나 사상은 그 시대의 사조나 분위기 속에서 형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도산도 예외일 수는 없다. 본 절에서는 도산의 사상과 행동 형성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조나 분위기가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진화론(社會進化論)을 들 수 있다. 도산의 사상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 사조 중의 하나는 20세기 초에 한국에 소개된 사회진화론<sup>32)</sup>이다. 진화론은 허버트 스펜서와 같은 철학자들을 통해서 사회진화론으로 발전했는데 이는 ‘생존 경쟁’과 ‘적자생존’을 골자로 한 진보 이론이었다.<sup>33)</sup> 그런데 서양에서는 인수동조론(人獸同祖論) 때문에 기독교에 도전하는 이론으로 간주되어 비판받고 거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별 어려움 없이 수용 될 수가 있었다. 오히려 약육강식하는 제국주의 국가의 침탈을 목격하게 되자 진화론을 일종의 정치 사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한국에 들어 온 이 사회진화론은 개화 사상과 연관을 맺으면서 자강론으로 발전해 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 진화론을 소개하는데 간접적으로 공헌한 책은 중국의 양계초의 ‘음빙실문집(飲氷室文集)’이었고 직접적으로 공헌한 사람은 유길준(1856-1914)이었다. ‘음빙실문집(飲氷室文集)’은 20세기 초 한국 지식인들의 필독서였고 그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담총(談叢)을 토대로 만든 ‘음빙실자유서(飲氷室自由書)’가 1908년에 번역되어 간행되었다. 이 무렵 도산은 ‘음빙실문집(飲氷室文集)’을 탐독했고 널리 익혀지기를 권했던 것 같다. 도산은 1908년 평양에 직접 설립한 대성학교 한문과의 교과서로 사서오경보다 ‘음빙실문집(飲氷室文集)’을 택했을 정도였다.<sup>34)</sup>

‘음빙실문집(飲氷室文集)’에 대해서는 이런 일화도 있다. 삼남 출신인 유지가 도

32) 사회진화론 : 진화론은 19세기 중엽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비롯된 것이나 그 후 허버트 스펜서와 토마스 헉슬리 같은 철학자들을 통해서 사회진화론으로 발전됨. 사회진화론은 개항 이후 개화 자강 사상과 애국 계몽 사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수용되었던 서구 사상의 하나로 당시 사상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많은 사상들이 전개되는데 이론적 기반이 됨.

33) 장을병(1986), “도산 안창호의 정치와 사상”, 「도산 사상 연구」, 제1집, 홍사단출판부, pp.11-12.

34) 주요한 편, 전계서, p.113.

산을 찾아와 나라 일을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하면 좋겠는지 모르겠다고 할 때에

“크게 용빼는 일만이 나라 일 아니요, 양계초가 만든 ‘음빙실문집(飲氷室文集)’이란 책이 있으니, 그것을 우선 몇 권 사서 삼남에 있는 유명한 학자에게 주어서 읽게 하시오. 그것이 나라 일이요.”<sup>35)</sup>

하고 타일렀다는 것이다. 유길준은 일본 유학 시절에 일본의 당대 대표적인 문명개화론자였던 복택유길(福澤諭吉)의 지도를 받았고, 1883년 도미했을 때는 에드워드 S. 모스의 지도를 받았다.<sup>36)</sup> 이에 도산은 유길준을 근대의 대표적인 지도자로 꼽을 만큼 숭앙하고 있었던 것 같다. 도산은 1924년 ‘동포에게 고하는 글 (일명 갑자논설)’에서

“... 근대에도 유길준 같은 어른은 우리의 지도자 되기에 합당하였건만 우리의 선인들은 그를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고 압박과 무시를 더하다가 마침내 그의 불우의 일생이 끝날 때에 가서 성대한 화장을 한 것을 보고 나는 슬퍼하였습니다. ...’고 하였다.”<sup>37)</sup>

당시 우리 나라의 계몽 사상가들은 사회진화론을 계몽 사상 전개的基本으로 삼게 되었고 그 결과로 실력양성론을 제시하고, 민족 정신의 고취를 강조하고, 신민 사상을 주창하였다.<sup>38)</sup> 한편 도산은 사회진화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점진적인 개혁주의로 나아갔다고 하겠다. 사회진화론은 혁명적인 변혁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에 관심을 쏟고 있다. 따라서 도산이 제시한 독립 운동의 방략도 점진론 내지 준비론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성급한 무력 항쟁이나 조급한 정치적 독립을 주장하기보다는 계몽을 통해 올바른 신민(新民)<sup>39)</sup>을 길러내는 데 힘써야 한다고 역설

35) 상계서, p.113.

36) 이광린(1979), 「한국 개화 사상 연구」, 일조각, p.266.

37) 주요한 편, 전계서, pp.527-528.

38) 김경일 외(2003), 「한국 사회 사상사 연구」, 나남출판, pp.208-221.

39) 신민(新民) : 우리 나라에 수용된 사회진화론을 애국 계몽 사상가들은 사상 전개의 기본 인식으로 삼았는데 그 결과로 실력양성론을 제시하고, 민족 정신의 고취를 강조하고, 신민 사상을 주창하였음. 신민 사상은 생존 경쟁의 시대에 있어서 국민 되는 자격이 없다면 자립할 수 없으므로 국권과 민권을 회복하기 위해 국민을 새로이 하여야 한

하였다. 그리고 올바른 신민이 길러지고 민족의 역량이 축적되면 국가의 독립은 성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도산이 양계초의 ‘음빙실문집(飲氷室文集)’을 중히 여겼던 사실과 유길준을 민족의 지도자로 숭앙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도산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조 중의 하나는 사회진화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민족 사상을 들 수 있다. 안병욱은 그의 논문 ‘기독교와 민족 사상’에서 ‘도산 사상의 근본 기초를 이루는 것은 민족 사상과 경천 애인의 기독교 사상이었다.’<sup>40)</sup>라고 밝히고 있다.

도산에게 형성되고 표출되어진 민족 사상의 근원은 아무래도 어렸을 때 필대은에게서 받은 영향이 크지 않았나 여겨진다. ‘안도산 전서’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필대은은 … 소년 도산에게 유일한 계몽자가 되었고, 도산의 가슴에 민족주의를 심는데 중요한 역할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sup>41)</sup>

다시 말해서 민족에 관해 눈을 뜨고, 용지를 펴고, 민족을 위해 평생을 몸 바쳐 일하게 된 것 등이 필대은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다. 도산은 필대은을 통해서 지식적인 면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토론을 통해서 의문점을 해소시켜 나갔으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나갔다.

신용하는 ‘안창호는 김현진의 서당에서 그의 민족 사상 형성에 큰 계기와 지식을 준 선배 필대은을 만나게 되었다. 안창호보다 몇 해 선배가 되는 필대은은 한문을 잘 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간행된 신서들을 많이 읽어 세계 대세에 대한 이해와 신지식을 갖고 있었다.’<sup>42)</sup>라고 하였다. 선배 필대은과의 만남,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 외국 군대의 조국 땅에서의 불법 상륙과 전쟁 등에 대한 관찰, 이 사태에 대한 필대은과의 토론 과정에서 민족 사상이 형성되고 애국심이 근저에서부터 확고하게 배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필대은이 동학농민혁

---

다는 것임(新民).

40) 안병욱(1976), “기독교와 민족 사상”, 「송실대 논문집」, 제19호, 송실대학교, p.545.

41) 주요한 편, 전계서, p.44.

42) 신용하(1994), 전계서, p.92.

명의 제2차 봉기 때에 황해도 동학당에 가담하여 활동했다가 실패하자 도망하여 서울로 상경해서 안창호의 거처 부근에 은신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두 청년은 당시 나라의 형편을 걱정하여 토론하면서 민족 의식과 애국심을 크게 발전시켰을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sup>43)</sup> 특히 도산은 필대은과 함께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그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그의 민족 사상은 독립협회에서의 민족 운동을 통하여 더욱 확고하게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도산의 민족 사상은 교육을 통해 힘을 기르고자 했던 민족 교육의 이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셋째, 기독교 사상을 들 수 있다. 1895년에 서울에 올라온 도산은 예수교 장로회에서 설립한 언더우드 학교(구세학당)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면서 집장인 손순명의 전도를 받아 예수교에 입교하였다.<sup>44)</sup> 도산이 얼마만큼 기독교에 심취하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그가 한 말이나 행동을 보면 기독교의 교리를 많이 수용하고 있었음은 분명했던 것 같다. 안성결<sup>45)</sup>은 다음과 같이 중요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해방이 된 후 그 다음 해 북한 공산당은 그들의 어용 단체가 된 기독교 연맹에 우리 탄포리 교회도 가입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 기독교 연맹에 가입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들 장로 집사 등 교회 재직자 17명이 전부 공산당에게 몰살되었다. 안창호 선생이 세운 탄포리 교회다운 순교 정신은 공산당도 굴복시키지 못한다고 마음 속으로 감탄했다. 불신자들 마저도 탄포리 교회야 안창호가 세운 교회인데 감히 어찌하겠나 하고 생각했다.”<sup>46)</sup>

점진학교를 설립하던 1899년에 고향 강서에 교회를 설립했고, 큰 형이 장로가 되어 교회를 이끌었던 가정 분위기를 보면 신앙심이 상당히 깊지 않았나 생각된다. 특히 도산은 기독교 교리에서의 ‘사랑’을 중히 여겨서 현실의 인간 관계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였다. 도산은

43) 상계서, p.92-93.

44) 주요한 편, 전계서, pp.48-49.

45) 안성결 : 도산의 큰 형 안치호의 둘째 딸. 도산의 질녀. 점진학교를 졸업했으며 도산이 말년에 송태산장에 머물 때 도산을 뒷바라지함.

46) 안성결(1996),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한국문화사, p.30.

“유정한 사회는 태양과 우로(雨露)를 받은 것 같고 화원에 있는 것 같아서 거기  
는 고통이 없을뿐더러 만사가 진흥합니다. … 이에 반하여 무정한 사회는 … 우리  
민족이 남을 공경할 줄은 알았으나 남을 사랑하는 것은 잊어 버렸습니다.”<sup>47)</sup>

라고 하고 있는데, 그가 주장하는 사랑은 기독교적인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산은 사회의 성원들이 협동을 통해 일을 성취해 나가는데 있어 가장 필  
요한 요소가 ‘사랑’이라고 외쳤다.<sup>48)</sup>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사회를 개조하자면 먼저 다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  
그러므로 정의(情誼)를 기르는 공부를 하여야 되겠습니다.”<sup>49)</sup>

“너도 사랑을 공부하고 나도 사랑을 공부하자, 남자도 여자도 우리 2천만이 다 서  
로 사랑하기를 공부하자, 그래서 2천만 한족은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되자.”<sup>50)</sup>

라고 하였다. 그의 말에서는 한국 사회를 사랑으로써 단결시키려는 의지가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산은



“죽더라고 동포끼리는 무저항주의를 쓰자. 때리면 맞고 욕하면 먹자. 동포끼리만  
은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오직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면 살고, 서로 싸우면 죽는다.”<sup>51)</sup>

라고 하여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곧 기독교 사상의 영향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도산이 동학농민혁명 당시 서울로 도망쳐 온 필대은을 설복시켜 기독교를  
믿게 한 일이나 중요한 일을 당할 때는 기독교식으로 기도를 올린 점, 또한 홍사  
단 문답시 기도로 시작케 한 점, 그리고 교회에서 수없이 설교를 하고 애국 연설  
을 한 일이 있다. 연설을 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용어를 많이 인용한 점

47) 안창호, “동지에게 주는 글”, 주요한 편, 전계서, pp.538-539.

48) 도산사상연구회 편(1986), 「도산 사상 연구」, 제1집, 홍사단출판부, p.16.

49) 주요한 편, 전계서, p.541.

50) 안병욱(1972), 「도산사상」, 삼육출판사, p.36.

51) 상계서, p.36.

등은 도산이 기독교 사상에 터한 삶을 살았음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sup>52)</sup>

그러기에 안병욱은 그의 논문에서 도산의 신앙과 인격과 생활과 행동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다름 아닌 기독교 사상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넷째, 유교 사상을 들 수 있다. 도산은 16세 전후까지 가정에서 한문을 수학하고,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는 등 유교 사상을 배웠다. 도산으로 하여금 자아혁신, 인간개조, 인격혁명을 통한 민족 역량의 함양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든 계기는 바로 그의 역사관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도산은 원래는 동양이 서양보다 문화가 앞서 있었는데 약 200년 전부터 동양의 문화가 서양에 뒤지게 되었다고 했다. 서양의 문명이 유태교와 기독교, 그리고 헤브라이의 헬라 정신을 토대로 발전된 것이라고 하면, 그 기본 규범의 하나는 진실 정신이었고 이러한 진실에 대한 탐구가 서양의 과학 문명을 낳았으며 동양보다 앞지르게 만든 동인이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반해 동양은 경직화된 유교 도덕 속에서 허례를 중요시했고, 인간 관계에서 진실성을 숭상하지 않았기에 거짓이 판을 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동양에서는 일부 지배 계층에만 편중된 유교가 자리잡아 가면서 진실성이 발휘될 수 없었고, 문화는 침체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도산은 한국의 근세사를 ‘유교로 인한 공론의 역사’라고 비판했다.

“도산은 극언하였다. 이조 500년의 역사는 공론의 역사였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조 500년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위대한 유산이 적고 오직 갑론을박과 그로 하여서 온 참무, 탄핵, 비방, 살육의 빈축, 산비할 기록이 있을 뿐이라고. 심지어 이렇다할 건축물 하나, 토목공사 하나 크게 자랑할 것이 없지 아니하냐고, 공담공론에서 나오는 필연한 산물은 쟁론과 모해 밖에 없을 것이 아니냐.”<sup>53)</sup>

고 하였다. 도산이 유교의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하고 있는 곳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유교의 형식주의, 허례, 공리공담 현상 등에 대한 비판 등이 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유교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 보다는 조선조 정치의 부패상에 대한 비판이며 조선조 부조리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덕육을 강조한 것이라든지, 건전 인격의 강조, 무실 역행 등의 주장은 어릴 때부터

52) 김재명(1986), “도산 안창호의 민족 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p.18.

53) 이광수, 전계서, p.136.

유교적 환경에서 자란 영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유교는 도산의 사상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양면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근대 서구 사상을 들 수 있다. 도산은 서구 문물이 가장 활발하게 수용되었던 개화지에서 성장하였다. 또 도산 자신이 오랜 서구와의 접촉이나 미국 생활의 체험 때문에 개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고 자신의 안목도 넓어져서 민주적 사고 방식 속에서 사랑, 자유, 인간 존중, 합리주의적 태도, 실용주의적 경향 등을 띠게 되었다. 또한 도산은 구습에 얽매어 구태 의연한 행동을 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것이라면 빨리 받아들이고 행동함으로써 실천해 나갔다.

도산은 서구 사상과 문물을 접하게 되면서 한국 민족에 대하여 더욱 따뜻한 애정을 갖고 더 힘있는 민족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게 되었다. 도산이 판단하기에 한국 민족의 기질은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우수한 민족이었는데 전통적인 지배 계층의 잘못으로 낙후된 민족으로 처지고 말았다고 깨닫게 된다. 낙후된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는 일은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는 일이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문명한 서구의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도산은 생각했다.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일시에 불행한 처지에 놓인 것은 다른 구미의 문화를 남보다 늦게 수입한 까닭입니다. 일본으로 말하면 구미와 교통하는 아시아 첫 어귀에 처하였으므로 구미와 먼저 교통이 되어 우리 보다 신문화를 일찍 받게 되었고, 중국으로 말하면 아시아 가운데 큰 폭원을 점령하였으므로 구미 각국이 중국과 교통하기를 먼저 주력한 까닭에 신문화를 먼저 받게 되었으나 오직 한국은 그러한 경우에 처하지 아니하였고 아시아로 처음 들어올 당시 정권을 잡았던 자들이 몽매 중에 있었으므로 신문화를 들여오지 못했습니다. 만일 한국 민족이 일본이나 중국으로 구미 문화가 들어올 그 때에 같이 신문물을 받았더라면 한국 민족이 일본 민족이나 중국 민족보다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sup>54)</sup>

---

54) 안창호, “동포에게 고하는 글-우리 민족 사회에 대하여 불평시하는가, 측은시 하는가”, 주요한 편, 전계서, p.517.

## 2. 사상적 기초

도산 교육사상의 기초가 되는 원리 내지는 도산의 인간상에 대해서는 학자 및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평가되고 있다.

안병욱은 도산의 사상 또는 행동 원리는 ‘자력주의, 인본주의, 민족주의, 성실주의, 합리주의’<sup>55)</sup>라고 표현했고, 박의수도 도산이 추구한 바람직한 인간상을 ‘자력주의, 인본주의, 민족주의, 성실주의, 합리주의’<sup>56)</sup>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김태길은 도산의 인품을 ‘합리주의자, 정열주의자, 민족주의자, 애국자, 성실주의자’<sup>57)</sup>로 평하고 있으며, 서영훈은 도산 사상을 힘의 교육학으로 표현하면서 그 구조를 ‘자력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인본주의’<sup>58)</sup>로 요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논의된 것을 종합, 분석하여 도산 사상의 기초를 ‘성실주의, 인본주의, 자력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로 파악하여 고찰하였다.

첫째, 성실주의를 들 수 있다. 한기연은 ‘도산 사상은 그의 드높은 인격으로 해서 빛나거니와 그 특성은 이지성, 진실성, 애국성이라는 면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금 하나로 표현한다면 성실성이라고 하겠다.’<sup>59)</sup>라고 밝히고 있으며, 강기수는 ‘도산이 교육을 주도하는 기초는 성실성과 점진주의이다.’<sup>60)</sup>라고 파악하고 있다.

도산은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 농담으로라도 거짓을 말아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

55) 안병욱(1991), “도산 사상과 상허 사상”, 「도산 학술 논총」, 제1집, 도산아카데미연구원, pp.294-303.

56) 박의수(1997), “21세기 한국의 인간상과 도산 사상”, 「도산 사상 연구」, 제4집, 도산사상연구회, pp.95-101.

57) 김태길(1993), “오늘의 시점에서 도산을 되돌아 본다”, 「도산 사상 연구」, 제2집, 연구사, pp.17-24.

58) 서영훈(1984), “영원한 겨레의 스승 도산 안창호”, 「스승의 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pp.132-136.

59) 한기연(1993), “변혁기의 개혁 운동과 도산 사상”, 「도산 사상 연구」, 제2집, 연구사, p.138.

60) 강기수(1998), 「교육사상사」, 세종출판사, p.116.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군부(君夫)의 원수는 불공대천이라 했으니 내 평생에 죽어도 다시는 거짓말을 아니 하리라.”<sup>61)</sup>

라고 하였다. 도산만큼 깊이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정직하게 산 사람도 흔치 않을 것이다. 정직을 말로 가르친 사람은 많다. 또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정직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지 않은 사회는 없었다. 그러나 정직을 몸으로 실천하며,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한 사람은 흔치 않다.

도산은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크고 작은 일을 여러 가지 도모함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을 접하면서 수없이 배신과 좌절을 맛보았다. 그리고 얻은 결론이 ‘인격 혁명’이었다. 인간 개조가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산은 사람을 대할 때나 일을 대할 때나 온 정성을 다했다. 성실을 몸으로 실천하였다. 아무리 궁한 처지에 있더라도 거짓말을 하는 일이 없었다. 우리는 대의를 명분으로 하여 작은 거짓말은 예사로 행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그러나 도산에게 있어서 정직은 절대적 명령이었다. 도산은 ‘합동과 분리’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 가족과 뼈에 젖어서 양심에 아무 거리낌없이 사람을 대하고 일에 임할 때 속일 궁리부터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 민국을 참으로 건질 뜻이 있으면.....각 개인의 가슴에 진실과 정직을 모시어야 하겠습니까. ... 대한 사람이 대한 사람의 말을 믿고, 대한 사람이 대한 사람의 글을 믿는 날에야. ... 거짓을 버리고 참으로 채우자고 거듭거듭 맹세합시다.”<sup>62)</sup>

도산의 성실주의는 모든 사람을 대하는 근본 원리이며, 일을 처리하는 기본 원칙이다. 도산이 망국의 설움을 안고 1913년 망명지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조직한 것도 성실주의 운동의 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인본주의를 들 수 있다. 도산에게 있어서 인본주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서 인도주의(휴머니즘)를 의미하며 또 하나의 측면은 모든 사회 개조의 출발이 인간에서 비롯된다는 인간 본위

61) 안병욱(1972), 전계서, p.11.

62) 안창호, “동포에게 고하는 글-합동과 분리”, 주요한 편, 전계서, pp.520-525.

를 의미한다. 도산은 지극한 사랑의 인물이었다. 그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 대하여 깊은 연민과 애정을 가졌었다. 방안에 둔 화초 한 포기조차도 무한한 애정과 정성을 가지고 돌보았다.

그리고 도산은 늘 정의돈수(情誼敦修)<sup>63</sup>를 강조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사랑을 실체화한 것으로 사랑이야말로 국가의 흥망과 인류의 흥망을 좌우하는 열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회에 정의(情誼)가 있으면 화기(和氣)가 있고, 화기가 있으면 흥미가 있고, 흥미가 있으면 활동과 용기가 있다.”<sup>64</sup>

고 했다. 또한 어떤 이유로라도 인명을 희생시키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철저히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신봉했다. 그래서 혹자는 그를 간디에 비유하기도 한다. 도산은 또한 모든 사회 개조는 인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그대가 먼저 건전 인격이 되라. 백성의 절고를 어여뻐 여기거든 그대가 먼저 의사가 되라. 의사까지는 못되더라도 그대의 병부터 고쳐 건전한 사람이 되라.”<sup>65</sup>

도산이 생각하기에 인간은 스스로 개조하는 동물이라고 여겼다. 나부터 스스로를 개조함으로써 민족이 개조되고, 궁극적으로 인간에 의해서 환경이 개조되고, 사회가 개조되고, 국가도 부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일의 성패의 제일 원인이 인간이라는 점이 도산의 인본주의의 또 하나의 측면이다. 그러므로 도산에게 있어서 인간은 최고의 가치이자 목적이며,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인간의 비인간화는 용납될 수 없었던 것이다.

---

63) 정의돈수(情誼敦修) : 정의(情誼)는 곧 사랑이며 서로 정답고 의좋은 것을 말함. 정의는 친애(親愛)와 동정(同情)의 결합이라고 도산은 말함. 돈수(敦修)는 두텁게 닦는 것을 말함. 즉 우리의 사랑이 더 많아지게 더 두터워지게 공부하고 힘쓰는 것이 정의돈수임.

64) 주요한 편, 전계서, p.32.

65) 상계서, p.29.

셋째, 자력주의를 들 수 있다. 도산은 소년 시절인 1894년에 평양에서 청일전쟁으로 일본군과 청군이 접전하는 모습을 보고 전쟁의 자취를 접하면서 만신창이가 되어 가는 조국 강토를 목격하고 의분을 금치 못하여 밤새 생각하고 필대은과 토의하게 된다. 그리고 얻은 결론이 ‘힘이 없기 때문이다.’ ‘힘을 길러야 한다.’였다.<sup>66)</sup> 이것은 도산의 일생을 지배한 사상이요, 행동 원리가 되었다.

1921년 도산은 상해에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지에 있는 동지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이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것이외다. 여러분은 힘을 기르소서. 힘을 기르소서... 참배나무에는 참배 열매가 열리고 돌배나무에는 돌배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독립할 자격이 있는 민족에게는 독립국의 열매가 있고, 노예 될 만한 자격이 있는 민족에게는 망국의 열매가 있습니다. ... 힘이 작으면 성공이 작고, 힘이 크면 성공이 크고, 힘이 없으면 죽고, 힘이 있으면 사는 것이 하늘이 정한 원리요 원칙이외다. ... 그러므로 천사만려하여 보아도 우리의 독립을 위하여 믿고 바랄 바는 오직 우리의 힘뿐이외다.”<sup>67)</sup>



우리가 믿고 바랄 것은 오직 나 자신의 ‘힘’, 우리 자신의 ‘힘’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도산의 자력주의 원리이다. 도산은 힘의 세 가지 요소를 신용, 지식, 금전 즉 인격의 힘, 지식의 힘, 경제의 힘으로 보았다. 그는 이를 3대 자본이라고 표현했다. 오늘의 국가 현실과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깊이 새겨보아야 할 원리라고 생각된다.

넷째, 민족주의를 들 수 있다. 이석희는 ‘도산의 민족주의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해 견지되었다. 즉 국내에서는 독립협회 및 신민회 활동에서, 미주에서는 공립협회, 대한인국민회, 흥사단 활동을 통해, 그리고 상해에서는 상해임시정부와 국민대표회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보여진다.’<sup>68)</sup>고 밝히고 있으며, 장규식은 ‘안창호는 이승만, 이동휘와 더불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3거두로 불렸던 일제하의 대표적 민족주의자이다.’<sup>69)</sup>라고 밝히고 있다.

66) 이광수, 전계서, p.8.

67) 주요한 편, 전계서, pp.1014-1020.

68) 이석희(1993), “도산의 시민 사회 운동론”, 「도산 사상 연구」, 제2집, 연구사, p.299.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해 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sup>70)</sup>

라고 했던 도산에게 있어서 민족은 곧 삶의 목적이며 삶의 의미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도산의 민족주의는 스스로 자립 자족할 수 있는 민족의 힘을 기르자는 것이었다. 흔히 민족주의는 편협한 국수주의나 배타적 쇼비니즘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도산의 민족주의는 국제주의적이며 참된 세계 평화의 길로 통한다는 것을 다음의 동우회 사건 심문기에서 엿볼 수 있다.

“나는 일본이 무력만한 도덕력을 겸하여 가지기를 동양인의 명예를 위하여 원한다. 나는 진정으로 일본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고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웃인 대한을 유린하는 것은 결코 일본이 이익이 아니 될 것이다. 원한 품은 2천만을 억지로 국민 중에 포함하는 것보다 우정 있는 이웃 국민으로 두는 것이 일본의 독일 것이다. 대한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동양의 평화와 일본의 복리까지도 위하는 것이다.”<sup>71)</sup>

도산은 어떤 경우에도 ‘일본놈’이라는 표현을 았았을 뿐만 아니라 자연인으로서의 일본인을 결코 미워한 적이 없다고 했다. 도산은 세계와 인류를 위하여 힘쓰는 길은 제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있다고 보고 국제 사회의 일원이라는 의식 위에 선 민족주의만이 옳은 민족주의라고 했다.

도산은 각 민족으로 하여금 외세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발달하게 하면 형형색색의 이종(異種)의 꽃이 한 폭의 화단에 조화된 미를 구성하는 모양으로 인류의 진정한 조화와 통일을 가져 올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민족 상호간의 간섭과 무력 투쟁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인류적이라고 했다. 이처럼 도산의 민족주의는 순수한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국제주의와도 조화를 이루

69) 장규식(2000), “도산 안창호의 민족주의와 시민 사회론”, 「도산 사상 연구」, 제6집, 도산사상연구회, p.47.

70) 주요한 편, 전계서, p.30.

71) 상계서, pp.479-480.

는 것이다.

다섯째, 민주주의를 들 수 있다. 유재천은 ‘도산은 한국의 근대 사상가들 가운데서 민주주의적 가치와 태도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철저히 체득한 사람의 하나였다. 도산은 서구 민주주의 사상이 개인의 사상과 토론의 자유에 그 본질이 있음을 깨달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민주주의적 태도와 가치의 확산을 앞으로의 민족 독립과 발전의 전제 조건으로 파악하였던 민주주의 신봉자였다.’<sup>72)</sup>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박명규는 ‘도산은 독립 운동가들 가운데 특별히 민주주의적 가치와 깊은 관련을 지닌 인물이었으며 민주주의 원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였던 사람이었다.’<sup>73)</sup>고 평가하였다. 또한 장을병은 도산을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한 진짜 민주주의자’<sup>74)</sup>로 규정하였다.

도산은 다년간의 미국 생활 체험을 통해서 민주주의적인 생활 태도와 사고가 몸에 밴 것 같다. 흔히 민주주의를 말할 때 우리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정치 제도(방법)와 생활 양식(태도)을 말한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참다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도산의 경우에는 화석화된 어떤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는 자연스럽게 인간을 사랑하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고 그것이 바로 인류의 평화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었을 뿐이다. 그는 확고한 신념의 인간이었지만 결코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지는 않았다.

“내게 한 옳음이 있으면 남에게도 한 옳음이 있는 것을 인정해서 남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 해서 그를 미워하는 편협한 일을 아니하면 세상에는 화평(和平)이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나와 다른 의견은 용납하는 아량이 없고 오직 저만 옳다하므로 그 혹독한 당쟁이 생긴 것이다.” “또 모진 돌이나 둥근 돌이나 다 쓰이는 장치가 있는 법이니, 다른 사람의 성격이 나와 같지 않다 하여 나무랄 것이 아니다.”<sup>75)</sup>

라고 하였다. 이처럼 도산은 개성의 자유와 존중을 명쾌하고 평이한 말로 갈파

---

72) 유재천(1993), “도산 사회 사상의 현대적 구현”, 「도산 사상 연구」, 제2집, 연구사, pp.84-85.

73) 박명규(1993), “도산의 민주적 조직론”, 「도산 사상 연구」, 제2집, 연구사, p.251.

74) 장을병(1993), “도산의 민주주의”, 「도산 사상 연구」, 제2집, 연구사, p.225.

75) 안병욱(1972), 전계서, pp.16-17.

하였다. 그래서 도산이 있는 곳에는 항상 화합과 화평이 있었다.

이상에서 고찰한 것처럼 도산 교육사상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성실주의, 인본주의, 자력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 Ⅲ. 도산의 교육사상

도산은 일생 동안 세 개의 학교를 세웠고, 미국에 처음 건너간 목적도 교육학을 공부하여 교육자가 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또한 수많은 단체를 만들었으나 궁극적 목적은 훌륭한 인격을 지닌 인물을 기르자는 것이었다. 도산을 평할 때 정치가나 혁명가라기보다는 민족계몽운동가나 국민교육자로 분류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인 것 같다. 도산의 관심은 교육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민족 수난기가 아니었으면 위대한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서영훈은 도산의 교육과 관련된 사상을 ‘힘의 사상, 인격 개조, 주인 정신’<sup>76)</sup>으로 요약하고 있고, 강기수는 ‘도산의 교육사상을 요약하면 인격 혁명을 통한 자기 혁신과 자기 개조를 통한 민족 개조 및 무실 역행, 그리고 주체로서의 주인 정신을 들 수 있다.’<sup>77)</sup>고 하고 있다. 그리고 김신일은 ‘도산의 힘 이론은 교육으로 직결된다. 도산의 교육은 식민지 교육에 대항하는 독립 운동으로서의 교육이고 일제에 대항하는 민족 교육이었다.’<sup>78)</sup>고 보고 있으며, 한기연은 ‘도산 사상은 힘의 교육 철학이다. 힘을 기르소서라는 한 마디는 도산 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한다.’<sup>79)</sup>라고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종합, 분석하여 도산의 교육사상을 민족 개조 사상, 힘 사상, 민족 주체 사상으로 파악하여 고찰하였다.

---

76) 서영훈(1984), “영원한 겨레의 스승 도산 안창호”, 전계서, p.137.

77) 강기수, 전계서, p.116.

78) 김신일(1993), “식민통치하의 도산의 교육 운동”, 「도산 사상 연구」, 제2집, 연구사, pp.113-114.

79) 한기연(1993), “변혁기의 개혁 운동과 도산 사상”, 「도산 사상 연구」, 제2집, 연구사, p.132.

## 1. 민족 개조 사상

도산 교육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그의 민족 개조 사상이다. 그는 민족의 자주 독립을 누구보다도 염원한 민족주의자였으며 민족의 힘을 배양 하길 위한 실천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석희는 ‘독립을 쟁취할 만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 사회 전반의 개조를 지향한 것이 도산의 개조 사상’<sup>80)</sup>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양호민은 ‘도산은 일생을 통하여 인간 개조와 인격 혁명을 강조하고 교육을 부르짖었으며, 독립의 준비를 논하고 타협에 의한 민족적 통일을 외치고, 점진주의적 운동 방법과 사회의 착실한 개조를 역설했다.’<sup>81)</sup>고 하고 있다.

도산은 우리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독립을 확신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기르고 우리 민족이 책임 정신과 민족 개조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능력 없는 우리 민족을 능력 있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부터 개조하는 것이 민족 개조의 첫 걸음이라고 하였다.

도산은 1919년 상해에서 ‘개조’란 제목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일생에 힘써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나는 우리 사람이 일생에 힘써 할 일은 개조하는 일이라 하오. 나는 사람을 가리켜서 개조하는 동물이라 하오. 이에서 우리가 맹수와 다른 점이 있소. 만일 누구든지 개조의 사업을 할 수 없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거나 사람이라도 죽은 사람일 것이요. 여러분, 공자가 무엇을 가르쳤소, 석가가 무엇을 가르쳤소, 소크라테스나 톨스토이가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그들이 일생에 많은 글을 썼고 많은 말을 하였소 마는 그것을 한 마디로 말하면 ‘개조’ 두 글자 뿐이요. 예수보다 좀 먼저 온 요한이 맨 처음으로 백성에게 부르짖은 말씀이 무엇이요. ‘회개하라’ 하였소. 그 후에 예수가 맨 처음으로 외친 말씀이 무엇이요. 또 ‘회개하라’ 하였소. 나는 이 ‘회개’라는 것이 곧 ‘개조’라 생각하오.”<sup>82)</sup>

도산은 인간이 훌륭한 것은 개조할 줄 아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가 혁

---

80) 이석희(1993), “도산의 시민 사회 운동론”, 전계서, pp.294-298

81) 양호민(1993), “도산 정치 사상의 현대적 구현”, 「도산 사상 연구」, 제2집, 연구사, p.44.

82) 안병욱(1972), 전계서, pp.46-47.

명의 원리를 말하지 않고 개조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은 부허와 과격을 삼가고 착실과 건전을 중시하는 도산의 점진주의적 사고 방식과 무실 역행의 한 표현이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을 개조할 것인가? 그는 한국의 모든 것을 다 개조해야 한다고 느꼈다. 우리의 교육과 종교도 개조하고, 농업과 상업도 개조하고, 우리의 풍속과 습관도 개조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도산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개조하자고 외친 것도 아니다. 마음의 개조, 도덕의 개조, 인격의 개조, 습관의 개조를 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개조를 하기 위해선 자기 자신부터 개조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믿었다.

도산은 또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를 거짓과 공리공론, 허위와 게으름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그는 우리 민족성의 개조를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 무실·역행·충의·용감의 4대정신을 제시하였다. 이 4대정신을 민족 정신의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일생을 통하여 이 본질적 교육 사업을 계속하였던 것이다.<sup>83)</sup>

도산은 민족 개조는 개개인의 자아 혁신에 의해, 자아 혁신은 무실·역행·충의·용감의 4대정신을 실천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sup>84)</sup>

## 1) 무실(務實)

무실이란 ‘實을 힘쓰자’는 뜻으로 실은 참이요, 진실이요, 성실을 의미한다. 실의 반대는 名, 虛, 空으로 빈 것이다. 따라서 참되기를 힘쓰고, 진실하기를 노력하고 성실하기를 공부하는 것이 무실이다. 도산이 실학파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무실 사상은 실생활과 유리된 공리 공론만을 일삼는 성리학의 폐풍을 버리고 실질을 숭상하고 이론보다 사물을 중시하고, 실사 구시와 이용 후생을 목표로 하는 실학 사상과 연결되는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여기에서의 무실은 저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되기를 힘써 참된 사람이 되자는 것이다.

도산은 대성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때 교육 방침<sup>85)</sup>을 실천하기 위하여 평소

83) 장리욱(1970), 「도산의 인격과 생애」, 대성문화사, pp.3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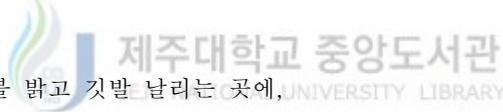
84) 강기수(1998), 전계서, pp.113-115.

85) 대성학교의 교육 방침 : 1. 건전한 인격의 함양 2. 애국 정신에 강한 민족 운동가 양성 3. 국민으로서 실력을 구비한 인재의 육성 4. 강장한 체격의 훈련.

그의 신념대로 ‘무실 역행’, ‘주인 정신’을 강조하였다.<sup>86)</sup> 도산은 학생들에게 참되기와 거짓없음을 수없이 가르쳤다. 그래서 도산은 대성학교 학생들에게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야’, ‘농담으로라도 거짓을 말아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고 가르쳤다. 대성학교 학생이었던 전영택(田榮澤)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하루는 도산 선생이 조퇴 시간에 나서서 한 학생에게 무기 정학 처분을 내린다는 것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학생은 우리 학교의 기본 정신인 진실성이 없이 속이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이 학생이 속인 일이 비록 작은 일 같지만 이런 정신으로 공부한다면 세상 없는 공부를 한다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요. 이런 학생이 있다는 것은 우리 대성학교의 큰 수치이외다. 우리 학생들은 꿈에라도 거짓을 버려야 하오.’”<sup>87)</sup>

무실 역행 정신은 1909년에 조직된 청년학우회의 4대정신에도 나타났다. 청년학우회가를 지은 최남선은 그 가사에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UNIVERSITY LIBRARY

무실 역행 등불 밝고 깃발 날리는 곳에,  
우리들의 나갈 길이 숫돌 같도다.  
영화로운 우리 역사 복스러운 국토를,  
빛이 나게 할 양으로 힘을 합했네.  
勇壯하던 조상의 피 우리 속에 흐르니,  
아모리한 일이라도 겁이 없도다.  
至善으로 이르라고 노력하는 정신은,  
자강 충실 근면 정제 용감이로세.<sup>88)</sup>

라고 하여 그 정신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도산은 상해에서 청년들에게 2대 생활 신조를 강조하였을 때도 제일 먼저 ‘거짓말 하지 말자’를 들었고, 둘째로 ‘놀지

86) 손인수(1985), 전계서, p.211.

87) 전영택(1967), 「도산 안창호 선생」, 대한기독교 계명협회, pp.22-23.

정학 처분 받은 학생은 결석계에 자기 도장이 없어서 남의 도장을 가지고 희미하게 찍어서 내었다가 발견됨.

88) 손인수, 전계서, pp.212-213.

말자'를 들었다. 또한 우리 민족의 기운이 쇠퇴한 근본 원인을 거짓과 거짓에서 생기는 온갖 악이 오랫동안 축적된 결과라고 생각했다. 거짓은 망국의 씨요, 나라의 원수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원수인 거짓을 없애자고 도산은 강조했다.

또한 도산은 '부허에서 떠나 착실로 가자'란 글에서 착실로 나아가자고 강조하고 있다.

“부허(浮虛)는 패망의 근본이요, 착실은 성공의 기초이다. 그런데 우리 대한의 사회 상태가 부허적인가 착실적인가, 다시 말하면 패망적인가, 성공적인가. 이것을 크게 묻고 답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위대하고 신성한 사업의 성공을 虛와 僞로 기초하지 말고 眞과 正으로 기초합시다.....<sup>89)</sup>

## 2) 역행(力行)

중국의 유학자 왕양명(王陽明)은 지행일치(知行一致)를 역설하였다. 知는 行의 初요 行은 知의 成이라고 주장하여 지식과 행동의 생명적 통일을 강조했다. 또한 실용주의 철학자 듀이는 지식은 행동을 위한 도구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알고 하는 것은 행하기 위해서다. 도산이 말하는 역행이란 '행하기에 힘쓰자'는 것이다. 이는 내가 몸소 행하고 실천하자는 것이다. 그는 백가지 논설보다 하나의 본보기가 더 힘이 있고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였다. 아는 것은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며, 知가 行으로 맺어지지 않으면 공리 공론이 된다. 빈 말, 빈 소리, 행하지 않고 말만 번드레하게 하는 것, 실천 공행이 따르지 않는 이론과 지식은 헛되고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損과 害와 惡을 끼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도산의 철학은 行의 철학이요, 실천의 철학이라 할 수 있다. 나도 행하고 너도 행하고 우리 모두 행하자는 것이 도산의 역행인데, 그는 스스로가 실천하여 지행합일(知行合一)의 본보기를 보여 주었다.

도산의 역행 사상은 우리 민족성에 대한 깊은 자각에서 얻어진 결과인 것 같다. 도산은 우리 민족의 2대 성격적 증환(症患)으로서 거짓과 공리 공론을 들었다. 그

---

89) 안창호, “동포에게 고하는 글 -부허에서 떠나 착실로 가자”, 주요한 편, 전거서, pp.530-532.

는 우리 민족이 공리 공론에서 벗어나 실천하는 국민이 될 때 자주 독립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백(百)의 논설보다 일(一)의 실물이 더 유효하겠오. 무실 역행하는 한 사람이 무실 역행을 말하는 백 사람보다 더 감화력이 있습니다.<sup>90)</sup>

라고 하여 실천이 이론보다 강함을 강조하고 있다.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자. 너도 주인이 되고 나도 주인이 되자. 공은 우리에게 돌리고 책임은 내게로 돌리자. 이 길밖에는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구원할 길이 없다고 믿자.”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 일본도 아니요, 이완용도 아니요. 그러면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한 책임자는 누구요, 그것은 나 자신이요. 내가 왜 일본으로 하여금.....내가 왜 이완용으로 하여금 조국을 팔기를 허용하였소? 그러므로 망국의 책임자는 나 자신이요.”<sup>91)</sup>



도산은 공리 공론을 배격하고 실천 공행하기를 힘쓰되 국민 각자가 나부터 몸소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역행은 부단한 노력을 요한다고 하면서 ‘꾸준히 힘쓰고, 또 힘써야 한다. 이제까지 게으르던 사람이 오늘부터 갑자기 부지런해 질 수는 없으며, 여태까지 거짓말만 하던 사람이 당장 진실해 질 수 없다. 거짓말의 습관이 생긴 사람, 무책임의 습관이 생긴 사람, 먼저 그 악습을 깨뜨리고 점진적으로 꾸준히 그 반대의 좋은 습관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산은 민족적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고질적인 생활 태도를 역행적인 생활 태도로 개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천 공행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역행 사상은 그의 교육 이념이었다.

### 3) 충의(忠義)

충의는 忠誠과 信義를 뜻한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사람에게 대해서는 신의

90) 안병욱(1972), 전계서, p.103.

91) 상계서, p.100.

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sup>92)</sup> 우리는 흔히 ‘忠’이라고 하면 忠君愛國 혹은 忠孝의 忠를 연상하여 봉건적 질서 하에서 가신이 주군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생각하기 쉬우나 이는 충의 일부에 불과하다.

안병욱은 인생은 대물 관계와 대인 관계 두 요소로 구성된다고 전제하고 충성은 대물 관계의 원리이고, 신의는 대인 관계의 원리라고 했다. 홍사단 약법 7조에 ‘뼉사에 청백하며 맡은 책임을 다하자’는 충의 실천을 강조한 것이고, ‘동지를 사랑하며, 신의를 확수하며, 환난 상구하자’는 것은 곧 신의의 실천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sup>93)</sup> 도산은 ‘동지에게 주는 글’ 가운데서

“만일 우리가 우리 몸부터, 우리 집부터 고치는 것을 큰 일로 보지 않는 이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을 속이는 사람이요, 우리 스스로가 속는 사람이외다. ... 그러나 나는 나의 생명을 다하여 나의 오늘에 할 일을 오늘 마다에 다하여 보려고 애씁니다.<sup>94)</sup>

라고 했다. 이는 일에 대한 忠의 자세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말이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생명을 다하는’ 자세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의 자세다.

신의는 인간 생활의 기본 질서요, 사회 존립의 근본 원리다. 참된 인간 관계는 신의를 바탕으로 가능하다. 인간 상호간에 신의의 질서가 무너질 때 대인 관계는 붕괴되고 사회 생활은 불가능해진다. 개인이건 국가이건 신의가 있으면 흥하고 신의가 없으면 망한다. 무실 역행을 생명으로 삼는 사람이 곧 충의의 인물이다. 따라서 무실 역행은 곧 충의의 기초가 된다.

도산은 이와 같이 신의를 중요한 자본의 일종으로 생각했다. 또한 도산은 우리 민족이 고쳐야 할 고질적인 성격적 질환으로 不忠과 不信을 지적하였다.

“대한의 일을 뉘게 맡기려 합니까?.....대한의 일은 대한의 사람이 할 것입니다. 그

92) 박의수(1993), “도산 안창호의 4대정신 연구”, 「제8회 도산사상연구회 발표 논문」, 도산사상연구회, pp.7-8.

93) 안병욱(1972), 전계서, pp.109-124.

94) 안창호, “동지에게 주는 글-오늘 할 일은 오늘에”, 주요한 편, 전계서, p.536.

런 즉 대한 사람인 우리는 대한의 일에 충성을 다함이 피치 못할 의무와 천직이 아  
닙니까? 어떤 이는 우리 일이 잘되고 못되는 것을 대통령이나 각원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는 줄로 생각하니, 이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과 천직을  
모르는 사람ियो,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외다.<sup>95)</sup>

도산은 ‘합동과 분리’에서

“서로 신용이 없으면 방침이 서로 같더라도 합동할 수가 없고, 서로 신용이 없  
으면 공동한 목적과 방법을 세우기부터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한 방침을  
세워 가지고 공통한 진행을 하려면 즉 합동의 사실을 이루려면 먼저 사회의 신용을  
세워야 하겠고 사회의 신용을 세우려면 먼저 각 개인의 신용을 세워야 하겠습니  
다.<sup>96)</sup>

라고 하여 신용 있는 사회를 만들어 협동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도산은 信의 인간, 信의 사회를 만들 것을 일생동안 역설하고 몸소 실천하였다.  
이와 같이 도산은 일에 충성하고, 인간에게 신의를 지키는 인간을 기를 것을 교육  
이념으로 하였다.

#### 4) 용감(勇敢)

용감은 옳은 일을 위하여는 두려움 없이 돌진하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참고  
견디는 견인불발(堅忍不拔),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자세와 기백을 가리킨다. 용기  
는 정의와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한다. 신념에 따라 거리낌이 없이  
일관된 삶을 사는 것이 용기다. 두려움이 있고 신념이 부족한 자는 남의 눈치나  
보면서 주저하게 마련이다. 무소신과 무책임은 책임전가로 나타나기 쉽다. 비겁한  
자는 강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오만하다. 반면 지성이 결여되어 진  
리와 정의에 대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자의 용기는 독선이나 만용에 흐르기 쉽다.

도산은 1927년 ‘동광’지에 게재한 ‘용단력과 인내력’이란 제목의 글에서 청년들에

95) 안병욱(1972), 전계서, p.110.

96) 안창호, “동포에게 고하는 글-합동과 분리”, 주요한 편, 전계서, p.523.

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대한의 청년들 앞에 공(公)으로나 사(私)로 막히어 있는 큰 원수는 방황과 주저외다. 할까 말까하여 ‘말까’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방황이요 주저외다. … 그 일이 옳은가 그른가, 이 일을 할까 말까 방황하고 주저하면 거기에는 고통이 생깁니다. 또 결국은 낙망합니다.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습니다. … 남이야 알건 모르건 오늘 대한의 청년된 이는 대한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할꼬를 스스로 연구하고 참고하여 옳다하는 바에 뜻을 세우고, 그 세운 바를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여 함께 나아갈 것이외다. …97)

도산은 우리 민족이 우유부단하고 대담한 기상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조심하는 것은 좋으나 지나친 조심으로 小心해서는 안된다. 대담하고 용감해야 한다. 적극적인 인간이 되기에 힘쓰자고 역설하였다.

“우리 청년은 태산같은 큰 일을 준비합시다. 낙심 말고 겁내지 말고, 쉬지 말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갑시다. 총독부 사령부라도 당돌히 출입하는 청년이 되시오. … 뉘 말을 들은 즉 상해에서는 조심한다고 일 못한다니, 조심하고 일 못하면 언제 하오. 죽을 작정하고 대담하게 일합시다.”98)

‘私鬪에는 겁내고, 公戰에는 용하시오.’, ‘나는 죽음의 공포가 없다,’고 하면서 도산은 죽음을 두려워 한지 않는 용기가 용감 정신이라고 가르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버릴 것도 강조했다.

이와 같이 도산은 용감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였으며, 용감을 건전 인격 형성의 주요한 요소로서 교육 이념으로 삼았다.

도산은 민족의 자립과 번영을 위해 애국심 있는 인물의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자아 혁신을 통한 민족 계몽으로 독립을 되찾고자 ‘무실·역행·충의·용감’의 교육 이념을 강조하고 몸소 실천했던 위대한 교육사상가요, 교육 실천가였

---

97) 안창호, “청년에게 부치는 글-대한 청년의 용단력과 인내력”, 주요한 편, 전계서, pp.546-548.

98) 안병욱(1972), 전계서, p.131.

다.<sup>99)</sup>

도산이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직접 학교를 세우고 운영했던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점진학교의 설립이다. 도산은 구한말의 침체된 국운 속에서 나라를 구제하려는 운동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개했다. 다시 말하면, 자아 혁신과 자기 개조를 통해서 민족 혁신과 민족 개조를 이룩하려면 다른 무엇보다 교육이 제일 급선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독립협회 활동의 실패로 고향에 내려 온 도산은 교육에 전념하기로 결심하고 1899년에 강서군 동진면 바윗고지(암화리)에 점진학교를 세웠다. 이 초등학교는 우리 나라 사람이 설립한 관서 지방 최초의 사립학교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남녀 공학이다.<sup>100)</sup> 교장 겸 교사인 도산이 교명을 직접 짓고 교가도 직접 지어 학생들에게 부르게 했는데 도산의 평생 신조인 실력 배양주의를 뜻하는 점진주의가 교명이나 교가에 잘 나타나 있다.

점진 점진 점진 기쁜 마음과

점진 점진 점진 기쁜 노래로

학과를 전문하되 낙심 말고

하겠다 하세 우리 직무를 다<sup>101)</sup>

이는 그가 평소에 강조하던 무실·역행 사상을 그대로 점진학교 교가 가사에 담아 젊은이들로 하여금 용기를 갖고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102)</sup> 이 같은 도산의 점진론은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으로 그는 민족 운동의 전개 방법에 있어서 급진론을 반대하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동지를 단결·훈련하고 교육과 산업으로 국력을 배양하는 길이 독립의 첩경이라고 주장하였다.<sup>103)</sup>

점진학교는 폭 넓은 세계 문화의 수용을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가르쳤고, 교재

---

99) 김연희(1996), “도산 안창호의 교육사상과 교육 실천”,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p.1

100) 주요한 편, 전계서, p.57.

101) 상계서, p.57.

102) 손인수, 전계서, p.208.

103) 상계서, pp.208-209.

도 새롭게 만들어 문화 섭취에 진력하였다. 점진학교가 신학문을 가르치는 교육 기관으로 명성이 원근에 퍼져 나가게 되자 수많은 새로운 학교가 평양 일대에 생겨났다. 점진학교는 남녀 공학을 실시함으로써 남녀 평등의 신사상을 계몽하는데 앞장섰다는 것도 획기적인 사실이다. 설립 된지 4년 만에 도산이 유학을 떠나게 되자 기독교 장로회에 인계되었고 일제하에서도 계속 운영되었으나 해방 후 공산 정권에 의해 폐교되었다. 점진의 원리는 도산의 공부하는 정신과 태도이기도 했다. 또한 생활 신념이기도 하였다. 도산은 60평생동안 새로운 점진 공부를 계속함으로써 점진 공부를 직접 몸으로 실천하였고, 이러한 신념에 의거하여 점진학교를 세웠던 것이다. 점진주의는 남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개척하여 점진적으로 자기의 생활의 향상을 기하자는 뜻이다. 이러한 점진주의적 사고는 그가 설립한 학교명에서도 알 수 있다. ‘점진’에서 ‘대성’인 이른바 ‘점진적으로 대성하는 인물’을 양성하자는 것이었으니 그게 바로 점진학교, 대성학교, 동명학원의 설립이다.<sup>104)</sup>

둘째, 대성학교의 설립이다. 도산은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1907년 미국에서 귀국하여 청년 동지들과 결속하여 신민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표면 사업으로 대성학교, 청년학우회, 태극서관, 마산동 자기회사 등을 설립하여 반일과 민족 자주 독립 정신을 일으키는 운동을 폈다. 신민회에서 학교를 설립하는 일에 힘쓴 까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일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sup>105)</sup>

① 중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민중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각출하여 설립하는 학교는 그 대부분이 소규모의 소학교였다. 신민회는 이러한 지역에 중학교를 설립하여 소학교 출신 청년들에게 고등 교육을 시킴으로써 국권 회복을 위하여 고급의 신지식을 습득한 민족 간부를 양성하려고 하였다. ② 학교의 모범을 만든다는 것이다. 신민회가 전국 각 곳에 중학교를 모두 세울 수는 없으므로 중요 지역에 모범이 될 만한 정미한 중학교 다수를 설립하여 민중에게 본보기를 제시해 줌으로써 민중이 이 본보기를 보고 동일한 종류의 중학교를 자발적으로 설립하도록 유도하려 하였다. ③ 이 중학교에서 동시에 사범교육을 시켜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신민회는 그들이 설립한 중학교에서 사범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교

104) 강기수(2002), 「교육의 역사와 사상」, 세종출판사, p.375.

105) 신용하(1986), 전게서, p.48.

사가 되어서, 전국 각 곳에 흩어져 학교를 설립하고 신민회의 목적과 이념대로 청소년들에게 국권 회복에 적합한 신교육을 시키도록 하여 교육 구국 운동을 전국적으로 파급시키려고 하였다.

대성학교는 도산이 중심이 되어 윤치호, 이종호 등과 함께 평양의 유지 김진후가 회사한 2만원과 오치후, 이종호, 이회원 등의 협력으로 1908년 9월 26일 평양에 설립한 중학교였다.<sup>106)</sup> 도산이 대성학교를 설립한 목적은 그 당시 요구에 의한 구국 운동과 국민 교육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에 있었고, 중등 교육 기관에 해당하는 학교였다.<sup>107)</sup> 대성학교의 교육 방침은 아래의 4가지에 두었다.

- ① 건전한 인격의 함양
- ② 애국 정신에 강한 민족 운동자 양성
- ③ 국민으로서 실력을 구비한 인재의 양성
- ④ 강장한 체력의 훈련<sup>108)</sup>

도산은 이 교육 방침을 실천하기 위하여 평소 그의 신념대로 ‘무실·역행’을 강조하였다. 특히 誠을 기본 철학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시간 엄수, 약속 이행, 무실·역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대성학교의 학제는 중학교를 3년, 예비과를 1년으로 하였다. 첫해의 입학 지원자에게는 ① 독서(국한문), ② 작문(국한문), ③ 산술(4칙)을 시험 보게 하여 불합격자는 예비과에 넣고 합격자는 중학교 1학년에 입학시키었다. 또 그 부설로 농림강습소를 설치하고 50명을 정원으로 하여 1년 속성 과정을 개설하였다. 1910년부터는 하기사범강습소를 부설하여 소학교 교사들의 재교육을 실행하였다. 제2학년도 부터는 입학 지원자가 쇠도하였으므로 입학 연령을 예비과는 15세 이상, 중학본과는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입학 시험 과목도 예비과는 ① 독서, ② 작문, ③ 산술(4칙이내), ④ 본국지리역사대요, ⑤ 체격으로 하고, 중학본과는 ① 독서, ② 작문, ③ 산술(분수 이내), ④ 본국지리역사, ⑤ 이화학, ⑥ 박물, ⑦ 일어, ⑧ 체격 등으로 하였다.<sup>109)</sup>

---

106) 신용하(1986), 전계서, p.50.

107) 장리욱, 전계서, p.101.

108) 손인수, 전계서, pp.210-211.

109) 신용하(1986), 전계서, p.51.

대성학교는 학과 내용이 무척 차원이 높아 전문학교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일반 중학교와는 달리 소정의 학교 과정 외에 민족 정신의 고취와 민족성의 개조에 더욱 치중하는 교육 방침을 가진 특수 훈련 기관으로서 민족 운동가 양성 기관의 면모를 띠었다.

대성학교는 각 도에 세울 계획이었으니 평양의 대성학교는 그 제1교요, 표본 학교였다. 평양 대성학교를 모범적으로 완성한 후 그 모형대로 각 도에 대성학교와 같은 정신의 초등학교를 지도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평양 대성학교는 오늘날 말하는 중등학교와는 교육 목적과 방침이 달랐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도산은 '거국가'를 남기고 미국으로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되었고 제1회 졸업도 보지 못하게 되었다. 뒤이어 105인 사건<sup>110)</sup>이 일어나 학교 교원과 후원 단체이던 태극서관의 중심 인물들이 모두 체포되고 학생들 중에도 피검된 사람들이 많았으며, 그 나머지 주목을 받던 학생들도 망명함으로써 대성학교의 자치 활동과 학교의 기풍도 위축되었다. 그러나, 1912년 봄 제1회 졸업생 19명을 배출하자 전국 각처의 교육 기관으로부터 교사 초빙의 추천서가 쇄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대성학교는 이 해에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교 당하고 말았다.<sup>111)</sup>

도산의 대성학교는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사립학교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조신성이 평양에 진명여학교를, 윤치호가 개성에 한영서원을, 대성학교 설립에 관계했던 이종호는 고향인 함북 경성에 경성중학교를 세워 교풍이 대성학교와 같게 하였다.

셋째, 동명학원의 설립이다. 도산은 해외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도 유학생을 교육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1924년 봄에 중국 남경 한서문안에서 동명학원을 세웠는데 이 학원은 구미나 중국의 각 대학에 유학하려는 학생들에게 어학과 덕육을 비롯하여 유학생에게 필요한 준비 교육을 시켰다.<sup>112)</sup> 당시는 3·1운동 후라 많은 청년들이 미국 유학을 지망하여 중국으로 옴에 따라 그들이 중국에 입적하여

110) 105인 사건 : 1910년 선천에서 안명근이 테라우치 총독을 살해하려고 계획했다가 체포된 사건이 일어남(테라우치 암살 음모 사건). 신민회가 중심이 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을 계기로 700여 명이 검거되는 105인 사건이 일어남.

111) 김기석(1970), 「남강 이승훈」, 세운문화사, p.90.

112) 도산기념사업회(1953), 「도산 안창호」, 도산기념사업회, p.248.

중국 정부의 여행권을 받아 미국 유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에 어학도 준비시키자는 것이 도산이 동명학원을 설립한 목적이었다.<sup>113)</sup>

1924년 10월 30일 도산은 渡美 환송식이 열리는 곳에서 동지들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했다.

“... 첫째, 동지를 규합할지니 남녀노소나 지방과 주의와 종교를 물론하고 ‘민족을 해방하자’는 자이면 된다. 둘째, 불건전한 사람을 건전한 인격자로 만들자. 셋째, 신성한 단결을 조성할지니 믿는 일과 믿는 동지를 우리는 아직 못 가지고 있다. 이상의 일은 국내에서 할 것이요, 해외에서 할 일은 경제의 기반과 교육의 기관을 만들어야겠다고 본다. 모범 사회를 온애(濫愛)로서 만들 것과 인도자를 후원할 것이다. 동명학원을 잘하여 나갑시다.”<sup>114)</sup>

도산은 이와 같이 해외에서 할 일은 경제적인 기반을 닦아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교육 사업에 전념하는 일이라 하였다. 동명학원은 건전한 인격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신과 인격의 수련장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도산은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에서 성실과 자상한 사랑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민족의 힘을 기르는 길이 독립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신념을 실천하였다. 그러나 1926년 국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유학생 수가 20명 이하로 줄어들어 따라 경상비가 부족하였다. 그래서 남경 교포들의 성금으로 유지하는 형편이었으나 결국 재정 형편상 1926년 말에 폐교되고 말았다.

## 2. 힘 사상

도산이 일생을 통해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역설한 것이 ‘힘을 기르자’는 것이었고 그의 교육사상의 핵심도 힘 사상이었다. 도산은 교육을 구국의 수단으로 생각했으며 민족 독립의 기초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형만은 ‘도산의 사상과 행적은 민족 계몽과 민족성의 향상을 통한 실력 배양

---

113) 장리욱(1970), 「도산 안창호-현대 한국 인물 전집Ⅳ」, 태극출판사, pp.352-353.

114) 임중빈(1992), 「도산 안창호」, 명지사, p.277

에 걸쳐 있었다. 교육은 도산이 목적하는바 실력 배양론의 핵심을 이루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었다.’<sup>115)</sup>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손봉호는 ‘도산은 그 시대에 활동했던 대부분의 다른 애국자들과 여러 면에서 달랐다. 그의 독립 운동은 일본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반일 운동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고치고 힘을 기르자는 자력갱생론자였다.’<sup>116)</sup>고 평가하고 있다.

도산은 1921년 7월 7일 미국, 멕시코에 있는 홍사단 동지들에게 보내는 ‘힘을 기르소서’라는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다.

“내가 이에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이것이외다. 여러분은 ‘힘을 기르소서, 힘을 기르소서’ 이 말이외다. 천사만려 하여 보아도 우리의 독립을 위하여 믿고 바랄 바는 오직 힘이외다. 여러분 동지여 … 우리는 우리의 힘을 믿고 우리의 힘을 바라고 우리의 힘을 기릅시다. 오늘의 우리의 힘이 없음을 한탄하지 말고, 힘만 있으면 성공할 줄을 깊이 깨닫고,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에게 있는 마음과 있는 뜻과 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합시다. 세상만사에 작고 큰 것은 물론이고 일의 성공이라는 것은 곧 힘의 열매입니다. 힘이 작으면 성공이 작고, 힘이 크면 성공이 크고, 힘이 없으면 죽고, 힘이 있으면 사는 것이 하늘이 정한 원리와 원칙이외다.”<sup>117)</sup>

일은 힘의 산물이요, 일의 성공은 곧 힘의 열매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바랄 것은 오직 힘 밖에 없다. 도산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입장을 떠나 언제나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이론보다는 실천을 중히 여겼고 어떤 시련을 만나더라도 인내와 용기를 갖고 힘을 길러나가자고 역설하였다.

“오늘에 가장 힘이 많다고 자랑하는 그 민족들의 근본을 돌아보면 본래 하늘에서 그 힘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외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다가 속히, 쉽게 되지 않는다고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 것이외다. 오직 대한 민족의 생명은 힘을 기르고 못 기름에 달린 줄을 깊이 자각하고, 굳은 결심으로 나아갈 뿐이외다. 꾸준히 나아갈 뿐이외다.”<sup>118)</sup>

115) 문형만(1987), 「교육사상이 평전」, 교학연구사, pp.263-264.

116) 손봉호(1983), “도산의 윤리 사상과 21세기 홍사단 운동”, 「21세기 홍사단 운동의 방향과 과제」, 홍사단, pp.26-27.

117) 안창호, “동지 제위에게”, 주요한 편 전계서, pp.1014-1017.

도산은 우리에게 희망의 철학을 말하고 신념을 강조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의 장래에 대하여 결코 비관적이 아니었다. 오히려 밝은 낙천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뒤떨어진 것은 다만 자각이 늦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서한집에서 ‘나는 우리 민족의 장래에 대하여 큰 소망을 가집니다. 나는 우리 민족의 본질에 대하여 조금도 비관을 품지 아니합니다. 나는 넉넉히 대사업을 이룰 민족이라고 굳게 믿습니다.’라고 하였다.

도산은 민족 부흥의 핵심인 힘을 기르기 위한 원리를 제시했으니 그것이 건전 인격의 형성과 공고한 단결의 2대 원리다. 그 바탕 위에 민족의 3대 자본축적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산은 ‘청년에게 호소함’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세상의 모든 것은 힘의 산물이다. … 제군이여, 일은 힘의 산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가. 만일 그것을 믿고 힘을 찾는다면 그 힘이 어디서 오겠는가. 힘은 건전한 인격과 공고한 단결에서 난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러므로 인격 훈련과 단결 훈련 이 두 가지를 청년 제군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바다.”<sup>119)</sup>

도산은 이 글에서 인격 훈련과 단결 훈련을 하고 아니 하는데 우리의 사활 문제가 달렸다고 말하고 있다. 도산은 우리 민족의 장래에 큰 소망을 가졌으므로 우리에게 힘만 있으면 큰 사업도 이룩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힘의 축적을 위해서 개인적 수련이 선행되어야 함도 강조하였다.

도산의 힘 사상은 도산 교육사상의 기초이다. 도산은 교육을 구국의 수단으로 생각했으며 민족 독립의 기초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힘은 독립의 기초요 생명이다. 힘이란 뭐냐? 국민의 사는 길인 힘은 도덕, 지식, 단합으로 국민다운 국민이 되어야 함에 있다. 그러자면 국민 중에 덕과 지식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있는 개인이 생겨야 하고 그러자면 자신부터 솔선해서 그러한 사

118) 상계서, p.1020.

119) 안창호, “청년에게 부치는 글-청년에게 호소함”, 주요한 편, 전계서, pp.544-545.

람이 되어 이 나라에 힘을 더해야 한다. 공부하여 힘을 길러야 한다.”<sup>120)</sup>

이러한 힘의 배양을 위해선 국민 각자가 인격 훈련을 통해서 건전한 인격을 조성하고, 단결 훈련을 통하여 국력을 결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는 인격 훈련, 단결 훈련, 민족 3대자본 동맹 저축에 대해 고찰하였다.

## 1) 인격 훈련

인격의 기본 요소에 관해서는 동서 고금의 많은 사상가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말하였다. 공자는 ‘智·仁·勇’의 3요소를 말하였고, 플라톤은 지혜·절제·용기·정의의 4원칙을 강조하였다. 기독교에서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셋을 역설하였다. 페스탈로찌는 머리(지식)·손(기술)·가슴(도덕)의 조화를 주장하였고, 괴테는 의욕·당위·능력의 통일을 주장하였다.<sup>121)</sup> 도산은 민족의 독립과 자존 그리고 부흥과 번영을 위하여 우리가 제일 먼저 힘써야 할 것은 나부터 자아 혁신에 힘쓰고 인격 개조를 이루어 건전한 인격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건전한 인격의 내용으로는 도덕적 품성, 튼튼한 몸, 자주적 직업인의 세 가지 요건을 조화롭게 구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 (1) 인간다운 도덕적 품성을 갖추는 것이다.(德育)

도덕적 품성은 인생의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소금의 짠맛, 사탕의 단맛과 같은 것이다. 짜지 않은 소금이나 달지 않은 사탕은 이미 소금이나 사탕이 아니거니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품성이 결여된 인격은 벌써 인격이라고 할 수 없다. 인간이 지식이 뛰어나고 신체가 건강하지만 덕성이 없으면 지식이나 신체를 바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홍사단 약법 제3조에서는 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으로 덕성을 함양하며 신체를 단련하여 기력을 강장케하며 전문 지식 또는 생산 기능을 습득하여 건전한 인격을 작성케 하는 일.

(2. 3은 생략)<sup>122)</sup>

120) 임중빈(1983), 「도산 안창호 : 그 생애와 정신」, 명지사, p.16.

121) 안병욱(1972), 전계서, pp.55-56.

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도덕적 품성을 갖추는데 있어서 무실·역행·충의·용감의 4대정신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2) 튼튼한 몸이다.(體育)

홍사단 약법 3조 1항에 ‘신체를 단련하여 기력을 강장케 하며’라는 구절이 있다. 도산은 스스로 강건한 신체를 갖기 위해서 늘 체조를 하고 기력을 강장케 하는데 힘썼다. 몸이 약하면 민족을 위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산은 知育보다는 德育과 體育를 더 강조하였다. 덕이 없는 인간의 지식은 악의 힘이 되기 쉽고, 몸이 약한 사람의 知는 불평 불만의 씨가 되기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강건한 정신은 강건한 신체에서 생긴다고 도산은 갈파했다. 오늘날 주지주의 교육에 휩쓸려 지식을 편중하고 덕육과 체육을 경시하는 현대 교육의 병폐를 생각할 때 건전 인격의 내용으로써 도덕적 품성과 동시에 강건한 신체를 강조한 것은 도산이 교육의 본질을 갈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생산적인 직업을 강조한다.(知育)

도산은 건전한 인격의 세 번째 요소로 생산적 직업을 강조하였다. 사람은 누구든지 제 힘으로 제 밥벌이를 해야 한다고 도산은 확신했다. 각자 한 가지 이상의 전문 지식이나 전문 기술을 가지고 제 힘으로 제 의식을 버는 생산적 직업인이 될 것-이것이 도산의 건전 인격의 필수 조건이다. 근면은 곧 선이요, 나태는 곧 악이라고 도산은 믿었다. 도산은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전문 지식을 가져야 된다 함이외다. 전문 지식을 못가지겠거든 한 가지 이상의 전문적 기술이라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빈 말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요, 그 살아갈 만한 일을 참으로 가지어야 사는 세상이외다.”<sup>123)</sup>

도산은 90년 전에 벌써 각 개인이 자기의 생활력을 갖도록 1인 1기 교육을 실

122) 홍사단편찬위원회 편(1964), 「홍사단 50년사」, 대성문화사, p.14.

123) 서영훈(1983), 「홍사단 운동 70년사」, 홍사단출판부, pp.247-247.

시해야 함을 자각하고 학교 교육이나 사회 교육을 통해 노력해 왔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도산의 선각자다운 면모를 엿볼 수 있다.

## 2) 단결 훈련

굳건한 단결력을 가진 민족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어려운 도전에 부딪칠 때 능히 그 것을 극복해 낼 수 있다. 그와 반대로 단결력이 약한 민족은 내외의 도전에 부딪칠 때 좌절하거나 패배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결력은 민족의 흥망 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오랜 동안의 봉건치하에서 자발적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했고, 합동의 철학, 합동의 정신, 합동의 도덕성을 결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민족의 흥왕을 위해서 강한 민족적 단결력을 준비하자고 호소했다. 그래서 도산은 ‘합동과 분리’에서

“남더러 합하지 않는다, 편당만 짓고 싸움만 한다고 원망하고 꾸짖는 그 사람들만 모이어서 합동하더라도 적어도 몇 백만은 되리라고 믿습니다.”<sup>124)</sup>



라고 하였다. 또한 도산은 우리 민족의 성격적 결함을 냉철히 연구, 분석한 결과 우리 민족이 단결에 매우 서투르고, 민족적 결합력이 심히 약하다는 것을 갈파하였다. 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굳게 단결할 수 있는가, 단결을 가로막는 요소가 무엇이며 단결을 추진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단결의 방법과 조건은 무엇인가? 하고 깊이 생각하였고, 단결을 이룰 수 있는 확고한 방법론으로써 공통의 목표와 공통적 신용을 세우며 서로 사랑하고 돕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세 가지 단결 훈련 방법을 제시하였다.

### (1) 공통의 목표

도산은 합동과 단결을 이루는 조건으로 공통으로 추구하는 목적, 이상, 관심, 이익, 계획이 있어야 하며, 만일 공통 목표가 없으면 국민 사이에 합동과 단결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 또 우리가 요구하는 합동은 민족적 감정으로 하는 활동이

---

124) 안창호, “동포에게 고하는 글-합동과 분리”, 주요한 편, 전계서, pp.520-525.

아니고 민족적 사업에 대한 합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 민족이 주인적 책임 정신을 가지고 확고한 이념과 사업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공통적 목표와 방침을 세우자고 하였다. 도산은

“이 공통적 조건의 방침과 목표를 세우는 근본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대한 사람 각 개인의 머릿속에 방침과 계획을 세움에 있습니다. … 민족 사회는 각개 분자인 인민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그 인민 각각의 방침과 계획이 모이고 하나가 되어서 비로소 공통적인 방침과 계획 즉 협동의 목표가 생기는 것은 민족 사회에서는 피치 못할 원칙입니다.”<sup>125)</sup>

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도산의 독특한 민족적 통합 이론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중합을 이루는데는 힘을 통해 반대 의견의 제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손쉽고 편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힘을 통해 반대 의견을 억누름으로써 이루어지는 통합은 그 힘이 느슨해지거나 작용하지 않을 때는 필연적으로 깨어져서 오히려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고 만다. 따라서 올바른 통합이란 반대 의견의 제시를 허용하면서 대화나 타협을 통해 異見들을 좁히고 대립을 해소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도산이 20세기 초에 이러한 통합 이론을 주장했다는 것은 선견지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 (2) 공통적 신용

개인이든 국가든 신의가 있으면 흥하고 신의가 없으면 망하게 마련이다. 개인의 사회 생활도 상호 신뢰가 있을 때 협동하고 친애하며 공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한 민족이 국제 사회에서의 활동에 있어서도 민족적 공신력이 확립되어 있어야만 외교나 대외적 무역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공통적 신용을 세울 것입니다. 이 위에 말하기를 민족적 합동은 공통한 조건을 세움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거니와, 그보다 먼저 될 문제는 사회의 각 분자 되는 개인들의 신용입니다. 서로 신용이 없으면 방침이 서로 같더라도 합동될 수가

---

125) 상계서, pp.520-525.

없고, 서로 신용이 없으면 공통한 목적과 방법을 세우기부터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통한 방침을 세워 가지고 공통한 진행을 하려면, 즉 합동의 사실을 이루려면 먼저 사회의 신용을 세워야 하겠고 사회의 신용을 세우려면 먼저 각 개인의 신용을 세워야 하겠습니까.<sup>126)</sup>

도산은 공통적 신용을 주장했고, 이 공통적 신용을 이룩하려면 개개인의 신용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도산은 공통적인 신용 위에서 공통적인 일을 위해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 민족의 큰 힘을 세우자고 강조하였다.

### (3) 정의돈수(情誼敦修)

도산은 합리적 사고에 의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주장했다. 도산이 정말로 소망스럽게 생각하는 사회는 냉엄한 원칙이 지배하는 차가운 사회가 아니라 정의(情誼)로 충만한 따스한 사회였다. 즉 ‘무정한 사회’가 아니라 ‘유정한 사회’였다. 도산은



“인류 중 불행하고 불쌍한 자 중에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자는 무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이요, 복 있는 자 중에 가장 다행하고 복 있는 자는 유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이외다. 사회에 情誼가 있으면 화기가 있고, 흥미가 있고, 흥미가 있으면 활동과 용기가 있습니다.”<sup>127)</sup>

라고 하였다. 도산은 情이 넘치는 사회, 誼가 넘치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정의돈수의 정신을 강조했다. 도산은 동포를 대할 때에는 형제애와 모성애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의돈수에 관해서 주의할 점으로 ‘첫째는 남의 일에 개의치 말라. 둘째 개성을 존중하라. 셋째 자유를 침범치 말라. 넷째 물질적 의뢰를 말라. 다섯째 정의를 혼동치 말라. 여섯째 신의를 확수하라. 일곱째 예절을 존중하라.’를 들었다.<sup>128)</sup>

126) 상계서, p.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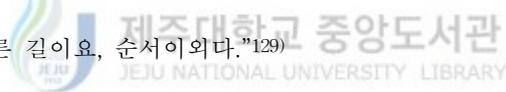
127) 안창호, “동지에게 주는 글-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 주요한 편, 전계서, pp.538-539.

128) 고재신(2001), “도산의 교육사상과 그 계승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p.22.

### 3) 민족 3대자본 동맹 저축

도산은 ‘힘을 기르소서’에서 민족 독립, 민족 부흥, 민족 번영의 기초 작업으로서 민족 3대자본 축적론을 제안하였다. 금전의 자본, 지식의 자본, 신용의 자본을 저축하자는 것이다. 금전의 자본은 경제적 자본이요, 지식의 자본은 정신적 자본이요, 신용의 자본은 도덕적 자본이다. 한 개인이든, 한 민족이든 우리가 독립해서 살아가려면 금전의 자본과 지식의 자본과 신용의 자본이라는 세 가지 밑천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 자본 축적이 없이는 개인도 독립할 수 없고 민족도 독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힘을 준비함에는 별한 새 주의(主義)와 새 방법을 연구할 것이 없습니다. ...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진실하여 신용의 자본을 동맹 저축합니다. 한 가지 이상의 학술이나 기예를 학수(學修)하여 전문 직업을 감당할 만한 지식의 자본을 동맹 저축합니다. 각기 수입에서 십분지 이 이상을 저금하여 적어도 천원(당시 화폐의 가치로) 이상의 금전의 자본을 동맹 저축합니다. 이 주의와 이 방침이 곧 우리의 힘을 예비하는 바른 길이요, 순서이외다.”<sup>129)</sup>



도산은 3대자본을 저축하되 혼자서 하지 말고 동맹해서 저축하자고 하였다. 같이 협동하고 동맹해서 저축하자는 것이 도산의 독특한 생각이고 방법이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힘이 필요하고 힘을 기르는 방법으로 3대자본을 동맹 저축하자고 강조하였다. 그 기초 작업을 하기 위해 도산은 지금부터 90년 전(1913년)에 흥사단을 조직하고 흥사단 운동을 전개하였다. 흥사단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학우회와 흥사단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학우회의 조직 및 활동이다. 청년학우회는 1909년 8월 17일 중앙위원장에 윤치호, 중앙총무에 최남선으로 하여 도산이 조직하였는데 우리 나라의 학생운동, 청년운동의 효시요, 시발로서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획기적 의의를 갖는다.

그 목적은 무실·역행·자강·충실·근면·정제·용감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훈련 방법을 덕육·체육·지육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sup>130)</sup>

129) 안창호, “동지 제위에게”, 주요한 편, 전거서, p.1018.

도산은 민족 계몽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무실·역행의 정신으로 인격을 수양하고 단체 훈련에 힘쓰며 한 가지 이상의 전문 학술이나 기예를 반드시 학습하고 평생에 매일 덕·체·지의 삼육에 관한 행사를 하여서 인격자가 되기를 기하자고 강조하였다. 도산은 청년학우회가 민족 향상 운동의 근원이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민족의 생명과 같이 하여야 수련된 인물이 정치가도 되고, 군인도, 문사도 되려니와 이 수련 자체에는 정치성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도산이 이런 큰 포부로 시작한 것이었으나 한일합방의 비운이 닥쳐 모든 결사와 신문이 해산을 당하자 청년학우회도 발기위원회인 채로 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은 수년 후에 북미에서 다시 도산의 힘으로 홍사단이 되어서 계승되었고 국내에서는 ‘수양동우회’라는 명칭으로 십 수년 계속하다가 동우회 사건으로 일망 타진되어 40여 명이 4년 동안 미결에 신음하는 동안 해산 명령을 받았다.

둘째, 홍사단의 조직 및 활동이다. 홍사단은 1913년 5월 13일 미국으로 건너간 도산이 샌프란시스코에서 8도를 대표하는 청년들을 창립위원<sup>131)</sup>으로 하여 조직하였다. 홍사단은 선비를 일으키자는 단체로서 지도적 인물, 사회의 본보기 인물, 이상적 인물을 일으키자는 의미이기도 하다.

홍사단은 대성학교와 청년학우회의 이념을 계승한 민족 부흥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창립 당시 도산에 의하여 기초되고 그 뒤 정식으로 기초된 홍사단 약법에 명시된 목적 조항은 다음과 같다.

“본단의 목적은 무실·역행으로 생명을 삼는 충의 남녀를 단합하여 정의를 돈수하고 덕·체·지 삼육을 동맹 수련하여 건전한 인격을 완성하고 신성한 단결을 조성하여 우리 민족 전도 대업의 기초를 준비함에 있다.”<sup>132)</sup>

안병욱은 홍사단 운동의 목적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sup>133)</sup>

첫째, 홍사단 운동은 힘을 기르자는 운동이다. 한국 민족이 제 발로 서서 독립의

130) 신용하(1986), 전계서, p.93.

131) 홍사단 창립 위원 : 경기도(홍 언), 강원도(염만석), 충청도(조병욱), 황해도(김항수), 경상도(송종익), 평안도(강영소), 함경도(김종립) 등임.

132) 주요한 편, 전계서, p.169.

133) 안병욱(1972), 전계서, p.232.

영광을 누리고 제 힘으로 번영하여 행복을 누리자고 하는 운동이다. 민족 자립, 민족 번영을 위한 기본 역량을 축적하자는 운동이다. 민족 자력 경쟁의 터전을 마련하자는 운동이다. 홍사단은 민족의 힘을 기르자는 운동이고 그 힘은 지식력과 도덕력과 금전력이다.

둘째, 홍사단 운동은 인물을 기르자는 운동이다. 홍사단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비를 일으키고, 인재를 양성하고, 엘리트를 기르자는 운동이다. 조국에 대한 강한 책임 의식을 느끼고 역사에 대해서 깊은 사명감을 갖는 지도적 인물을 양성하자는 운동이다.

셋째, 홍사단 운동은 민족성 개조 운동이다. 우리 민족의 그릇된 성격을 근본적으로 개조해서 우수한 성격의 민족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서 민족성 개조를 근본 사업으로 삼는 민족의 항구적인 단체로 홍사단을 만들자는 것이다.

도산은 우리 국민에게 인격 훈련과 단결 훈련, 공민 훈련의 3대 훈련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보았고, 무실·역행·충의·용감의 4대 정신으로 도덕적 정신 무장을 해야겠다고 통절히 느꼈다. 도산이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홍사단 운동을 시작한지 어느덧 90년이 된다. 홍사단 운동은 하루 이틀 할 운동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꾸준히 해나갈 항구적 민족 운동, 교육 운동이다.

### 3. 민족 주체 사상

한 사람의 사고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는 그가 처한 시대적인 상황일 것이다. 도산이 성장하던 시대는 조선 말기로써 국운이 쇠퇴하고 서구 열강과 일본의 침탈이 점점 심해지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태로운 시기였다. 1894년 도산은 청·일 두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평양을 짓밟고 전쟁의 참화가 우리 민족에게 미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 때 도산은 청나라나 일본이 우리 땅에 와서 전쟁을 벌이는 이유를 주인인 우리가 힘이 없는 까닭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의 자각을 통해 그의 민족주의적 주체 사상은 확립되었으며 무지한 우리 민족을 교육으로 일깨워야겠다고 확신하게 된다.

이러한 민족 주체 사상은 남의 힘에 대한 의존 의식의 반대이다. 즉 민족 주체

사상은 개인 또는 한 민족으로서의 자기 판단, 자기 의식 등을 말한다. 도산은 한말의 민족의 위기 상황을 경험하면서 민족 주체 사상의 핵심을 주인 정신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주인 정신으로 무장한 새로운 민족주의적인 인물을 양성하려고 평생을 노력하였다.

배순근은 ‘도산의 주인론은 본질적으로 주인 의식 각성 교육론이며, 이 주인 의식 각성이야말로 그가 동포에게 안겨주고 싶었던 가장 귀한 것이었다.’<sup>134)</sup>고 파악하고 있다.

## 1) 주인 정신

도산은 〈동광〉지에 실린 ‘당신은 주인입니까’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물노니 여러분이시여! 오늘 대한 사회에 주인 되는 이가 얼마나 됩니까. 대한 사람은 물론 다 대한 사회의 주인인데 주인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묻는 것이 한 이상 스런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대한인이 된 자는 누구든지 명의상 주인은 다 될 것이되 실상 주인다운 주인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 주인이 아니면 여객인데 주인과 여객을 무엇으로 구별할까. 그 민족 사회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심이 있는 자는 주인이요. 책임심이 없는 자는 여객입니다. 만일에 주인이 없거나 있다라고 수효가 적은 줄로 보시면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주인의 자격을 찾고 또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주인의 자격을 갖게 하는 그 일부터 하여야 되겠습니까.”<sup>135)</sup>

도산은 우리의 민족 사회에 대한 철저한 책임심을 강조하고 그러한 책임심을 가진 사람이라야만 민족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이러한 책임심 있는 민족 주체 사상을 가진 인물을 기르기 위해 점진학교, 대성학교를 세우고 지도하였다. 도산의 민족 주체 사상은 다름 아닌 주체적 정신이며 그것은 힘의 사상, 민족 개조 사상과 함께 도산 교육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도산의 민족 주체 사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타에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서겠다는 독립 정신이다.

134) 배순근(1994), “도산 주인 사상의 재조명”, 도산 사상 연구회 발표회 논문, p.6.

135) 안창호, “동포에게 고하는 글-당신은 주인입니까”, 주요한 편, 전계서, pp.518-520.

둘째, 우리 민족에 대한 철저한 책임 정신의 사상이다.

셋째, 우리 민족에 대한 명목상의 주체가 아니라 실제상의 주체가 되자는 사상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우리 민족에 대한 야욕이 점차 강해지면서 그에 위축된 많은 사람들이 민족 주체성을 상실하고 그들에게 협력해 가는 극단적인 시대 상황을 목격하면서 도산은 생각했다. 이것은 민족 주체 사상에 대한 문제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민족 주체 사상을 확립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민족 주체 사상은 그러한 시대적 상황과 민족의 주체성을 위한 염려에서 나온 우리 민족을 위한 사상인 것이다. 주체로 하여금 주체이게 하고 주관으로 하여금 주관이 되게 하는 것은 자주성이고 주인성인데 이것이 바로 민족 주체 사상이다.

주체는 주인이고 노예가 아니며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다. 도산은 주체성의 주인 정신을 강조한다. 그 주인 정신이 곧 민족 주체 사상이다. 민족 주체 사상을 지닌 사람은 가짜 주인이 아니고 참 주인이라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가짜 주인은 한 때의 흥분이나 일시적 감격으로 민족을 위하여 일한다고 떠드는 사람이다. 참 주인은 무엇이냐. 우리 민족 사회에 대하여 영원한 책임심을 진정으로 품은 주인이다.”<sup>136)</sup>

일시적 흥분으로 하는 애국 운동, 한 때의 감격으로 떠드는 애국 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러한 사람을 자주 보게 된다. 지나가는 손님도 남의 집에 불행하거나 비극을 보게 되면 동정하거나 도와 준다. 그러나 그것은 그 때의 한 때에 그치고 만다. 도산은 한국 사람들이 일시적 흥분이나 감격으로 애국 운동을 한다고 큰 소리로 떠들다가 얼마 안 가서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을 많이 보았다. 도산은 이러한 허망한 애국 운동을 준엄하게 경계하였다.

도산이 우리에게 묻고 구하는 것은 한국 민족의 참 주인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었다. 도산은 ‘내가 알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는 주인은 민족 사회에 대하여 영원한 책임감을 진정으로 품은 주인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한 주인은 어떤 심정과 태도를 가졌는가. 그는 오직 민족 사회의 일을 자기의 일인 줄 알고 민족을 건

---

136) 상계서, pp.518-519.

지겠다는 책임감과 민족을 건지어 낼 구체적 방침과 계획을 세우고 그 방침과 계획에 따라서 죽는 날 까지 진심 노력할 뿐이라고 했다. 도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기의 민족 사회가 어떠한 위난과 비운에 처하였든지, 자기의 동족이 어떻게 못나고 잘못하든지, 자기가 민족을 위하여 하던 일이 몇 번 실패하든지, 자기 민족 사회의 일을 일분 일초 간에도 버리지 아니하고 또는 자기의 능력이 족하든 부족하든지 다만 자기의 지성으로 자기 민족 사회의 처지와 경우를 의지하여 그 민족을 건져 낼 구체적 방침과 계획을 세우고 그 방침과 계획대로 자기의 몸이 죽는 때까지 노력하는 이가 그 민족 사회의 책임을 중히 여기고 일하는 주인이외다.”<sup>137)</sup>

한 집에 주인이 없으면 남이 그 집을 엿보고 빼앗아 버리듯이 한 민족에 참 주인이 없으면 타 민족이 그 민족을 침략하고 점령해 버린다. 그러므로 민족의 참 주인이 될 자격인 실력인을 교육을 통해서 기르자고 도산은 강조했다. 민족의 참 주인이 되자는 도산의 말을 바꾸어 말하면 진정한 민족의 주체 의식을 확립하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인의 자주 의식이 흔들리고 주체 의식이 약해질 때 우리는 다시금 도산의 교육사상으로서의 민족 주체 사상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도산은 민족의 자주 정신, 독립 정신, 책임 정신을 일깨우고 기르기 위해서 여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첫째, 독립협회를 통한 활동이다. 독립협회는 갑신정변이 실패한 뒤 미국에 망명하였던 서재필이 귀국하여 1896년 서구의 근대사상과 개혁 사상을 가진 인사들과 함께 조직한 단체로 그 중심 인물은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남궁억 등이었다. 독립협회의 활동은 자주 독립, 자강 혁신, 자유 민권의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이것은 외세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부르짖고 스스로 개혁을 지향하며 개화된 자유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이었다.<sup>138)</sup> 도산은 1897년에 독립협회에 가입하였으며 동회가 만민공동회로 발전함에 따라 필대는 등과 평양에 관서지부를 발기하고 활동했다. 그 해 여름 평양 쾌재정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쾌재정 단상에

---

137) 상계서, p.519.

138) 변태섭(2002), 「한국사 통론」, 삼영사, pp.407-408.

서 처음으로 열변을 토하였으며 애국 애족을 주장하였다. 또한 민중의 새로운 자각을 깨우치기 위한 18조의 쾌재(快哉)와 18조의 불쾌(不快)을 호소하며 낡고 그릇된 풍조를 개탄하고 이를 비판하며 민중의 새로운 자각을 호소하여 군중을 열광케했다. 쾌재정의 열변으로 도산의 명성이 전국에 퍼졌으며 이 후 도산은 수많은 연설을 통해 애국 애족과 구국의 방략을 제시하였다.

둘째, 공립협회의 조직이다. 공립협회는 도산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했던 교포들의 친목회를 발판으로 1905년 4월 5일에 조직되었다. 도산은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었는데 그 해 11월에 순 국문판으로 공립신문을 발행하였다. 공립협회의 목적은 교포들의 상부상조와 조국 공복이었으며 이 활동에서도 도산은 그의 평생 사업 원리를 적용하였는데 점진적으로 민중의 자각을 기다려서 하는 것, 민중 자신 중에서 지도자를 발견하여 그로 하여금 민심을 결합케 하고 결코 도산 자신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는 것이었다.<sup>139)</sup> 그는 공립 신문을 통하여 국민의 자각을 재촉하였고, 조국 광복의 힘을 점진적으로 길러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그의 동지 이갑, 김성무, 정재관 등과 협의 한 후 교육학을 공부하여 교육자가 되기로 했던 꿈을 접고 동포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분골쇄신하기로 맹세하고 활동에 뛰어들었다. 도산의 이러한 활동은 도산의 평생 사업 원리인 점진주의로서 점진적으로 민중의 자각을 촉구했으며 그의 계몽 활동과 실천 활동에 감화를 받은 교포들이 자각하여 생활 태도가 개선됨에 따라 미국에서 신뢰를 받기 시작하였다.

셋째, 신민회의 조직이다. 신민회는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됨을 듣고 항일 투쟁과 구국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귀국한 도산이 이갑, 양기탁 등과 같이 조직한 비밀 결사로서 1907년에 조직되었다. 신민회의 원대한 계획은 ①국민들에게 민족의식과 독립 사상을 고취시킬 것. ②동지를 발견하고 단합하여 국민 운동의 역량을 축적할 것. ③교육 기관을 각지에 설치하여 청소년 교육을 진흥시킬 것. ④각종 상공업 기관을 만들어 단체의 재정과 국민의 부력을 증진시킬 것에 두었다.<sup>140)</sup>

도산이 신민회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호소한 구국 방안을 보면 첫째, 독립은 타력으로 될 것이 아니라 민족 자체가 독립할 자격이 있는 후에야 성취되는 것이요,

---

139) 이광수, 전계서, p.18.

140) 조용만 외(1970), 「일제 문화 운동사」, 민중서관, p.23.

자기 힘으로 쟁취한 독립이라야 영구히 지닐 수 있는 독립이다. 둘째, 자력을 발휘하는 길은 국민 각자가 분발 수양하여 도덕적으로 거짓이 없고 참된 인격과 기술적으로 지식이나 기술을 한 가지씩 가진 유능한 인재가 되어야 한다. 셋째, 그러한 개인들이 뭉쳐서 신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41)</sup>

신민회는 그 자체는 비밀결사였으나 사업은 공개했다. 그 사업으로 가장 두드러진 것은 평양 대성학교, 평양 자기회사, 평양, 경성, 대구의 태극서관 등이었다. 이 신민회를 통한 사회 교육으로 애국 정신, 독립 정신은 날로 확산되어 갔으나 1912년 테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 사건으로 7백여 명이 검거되고 그 타격으로 신민회는 자연 해체되었다.

넷째, 대한인국민회의 조직이다. 도산은 1912년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인국민회를 조직하고 초대회장에 선임되었다. 이회는 해외 동포를 망라한 교민 단체로 민족 운동을 위한 조직이었다. 도산은 이회를 통해 교민의 제반 활동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였고, 민족의 수양 운동과 독립을 위한 운동으로 이끌어 나갔다. 또한 미국 동포의 보호 기관으로, 취직 알선 기관으로, 노동 조합으로, 문화 향상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맡았다.

그는 교민들의 생활 개선을 통하여 외국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신용 있는 생활로 민족 전체의 명예를 인상시킬 것을 역설하였다. 도산이 전개해 나간 국민회의 교육 활동을 보면 ① 미국에서의 한국인에 대한 제반 문제를 국민회를 통해서 하게 하고, ② 새로 입국하는 한국인이 여행권이 없거나 법정 휴대금이 없는 경우라도 국민회가 이민국에 보증하면 통하였으며, ③ 사업주들은 이회를 통해서 한국인 노동력을 구하였고, ④ 각지방의 대의원과 총회장을 투표로 선출한 후 민주 정치의 훈련을 하였으며, ⑤ 본국으로부터 오는 여행자나 유학생의 권위를 보호하고, ⑥ 동포들간에 쟁의가 있을 경우에 재결하였으며, ⑦ 생활 개선을 지도 장려하여 국민의 명예를 발양토록 하였다. 도산은 국민회를 통해 민족의 수양 운동, 독립 운동은 물론이고 재미 동포의 보호 기관으로 취직 알선 기관으로, 노동 조합으로, 근업 기관으로, 문화 향상 기관으로 활약하여 해외에서 설움 받고 고통에 시달리는 우리 민족에게 등불이 되었던 것이다.

---

141) 주요한(1982), 「안창호전」, 삼중당, p.61.

## IV. 도산 교육사상의 현대적 의미

오늘날 우리 교육에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음을 누구나 걱정한다. 그 문제의 실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도덕적 타락과 교육경쟁력의 약화라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은 교육외적인 측면과 교육내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외적으로는 황금만능주의, 출세지상주의, 부정 부패 등 병든 사회에서 오는 가치의 전도 현상 때문이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되고 양심이 마비되어 부정과 부패에 대한 심한 불감증에 걸려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들이 곧바로 교육 현장에도 문제를 확산시킨다. 내적으로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오는 인간 교육의 부재는 물론 스스로 생각하고 창조하는 지력(智力)의 계발에도 실패하여 지식 교육 자체에도 심각한 문제를 맞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를 생각할 때 도산의 교육사상은 교육 문제의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본 장에서는 현대적으로 계승해야 할 도산의 교육사상 즉 민족 개조 사상, 힘 사상, 민족 주체 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 1. 민족 개조 사상의 의미

민족 개조 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네 가지로 나누어 기술하려고 한다.

첫째,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 정립의 의미이다. 올바른 교육 목표의 정립 없이 교육의 성공을 바랄 수는 없다. 그 동안 우리의 교육은 당면한 목표에만 급급하여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목표의 설정보다 지엽 말단의 수단적 가치 추구에 급급해 왔다. 작게는 눈앞에 있는 시험 점수를 올리는 것이고, 좀 더 크게는 정권 안보 차원에서 특정 이데올로기의 주입이나 물질적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 어렵고 급할 때일수록 교육은 원대하고 근본적인 시각에서 그 방향을 설정해야 함을 도산의 민족 개조 사상은 가르치고 있다. 도산이 살았을 당

시 ‘민족의 독립’이라는 뚜렷한 장기적인 목표가 있었던 것처럼 ‘민족과 국토의 통일’과 같은 장기적인 목표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교육에서 정직성을 재인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죽은 덕목으로서의 ‘정직’이 아닌 참으로 정직한 삶을 실천하는 실질적인 도덕성 회복을 위한 가치를 재인식하도록 도산은 가르치고 있다. 우리의 교육을 진(眞)과 정(正)을 기초로 하여 다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학교에서 정직과 성실이 모든 교육적 가치의 최우선이 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직은 단순히 윤리적 덕목의 하나가 아니고, 모든 것의 시작이며 기초이기 때문이다.

셋째, 노작 교육과 가치관 정립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도산이 민족 개조를 위하여 독립 국민의 자격, 건전 인격, 신성 단결, 신용의 자본, 동맹 수련, 무실, 역행, 자조와 호조, 민족 개조, 자아 혁신, 인격 혁명 등의 말을 자주 사용하였는데 이는 진실, 실천, 협동의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여 말한 것은 무실·역행인데 이는 허위와 공리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그저 부지런히 일하라는 말이 아니고 진실하기를 힘쓰고, 행하기를 힘쓰라는 뜻이다. 도산은 협동적 노작을 통해서 협동 정신을 배양하고 문화의 원리를 체험시킨다는 교육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는 현대 교육에서도 강조되어야 할 의미의 노작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기술을 익히기 위함보다는 노작을 통해 도덕 교육을 행하자는 것인데 무실·역행과 정의돈수적 교육 방법이 노작 교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올바른 노작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문화적 협동체 안에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충족된 삶을 영위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격 교육, 공민 교육, 직업 교육 등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협동적 노작 교육을 통해서 균형을 기하고 원리를 체험시키자는 것이다.

넷째, 솔선수범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도산의 무실·역행 사상은 힘써 일하라는 의미보다는 행하기를 힘쓰라는 것 즉 실천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그는 실천공행은 이론보다도 강하다고 하였고, 천언만어(千言萬語)보다 한 가지 실천이 귀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육을 함에 있어서는 솔선수범을 으뜸으로 생각하였으며 우리의 민족성에서 실천이 없는 공리공론의 병폐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도산은 지식이란 행동을 위한 도구라고 주장하면서 행함이 없는 지식은 공리공론이 된다고 하였다. 실천공행이 없는 공리공론을 버리고 국민 각자가 실천인이 될 것을 주장하

였다. 따라서 도산이 모범을 보인 술선수범의 교육은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실천주의교육이라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2. 힘 사상의 의미

힘 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기술하려고 한다.

첫째, 전인교육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도산이 건전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 德育, 體育, 知育의 三育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의 교육이 바로 전인교육을 강조한 것이다. 오늘날의 교육 방향의 중요점의 하나는 능력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소질을 계발하도록 하는 전인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도산은 건전 인격의 실현을 위해서 도덕적 품성 갖추기, 건전한 신체 갖추기, 생산적 직업인의 자격 갖추기를 강조하고 조화적 발달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곧 현대 교육에서 강조하는 전인교육과 상통하는 교육관이라 할 수 있다. 도덕성 회복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덕육(德育)을 가장 먼저 앞세운 도산의 교육사상이야말로 현대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좋은 시사가 아닐 수 없다.

둘째, 교육을 통하여 민주시민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도산은 우리 민족이 자주 자립 정신, 협동 정신, 단결 정신, 봉사 정신 등 민주 시민으로서의 공민 의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도산은 민주 시민의 기본 정신이 되는 주인 정신을 우리 민족이 실천하도록 주장하였으며 의견의 상대성,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타협을 통한 협동 등 민주 시민의 기본 원칙을 몸소 터득하고 민주 시민 교육을 실천한 선구자이다. 도산은 올바른 민주 시민 교육을 통하여 국가를 위할 줄 아는 애국 정신을 고취시켰고 단결 훈련, 대공 정신 교육을 통한 가치관 형성으로 민족 자립을 앞당기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오늘날 현대 교육의 목표 중의 하나는 민주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 시민의 기본 정신인 도산의 대공주의와 봉사 정신, 그리고 협동 정신, 주인 정신을 갖춘 민주적 공민 훈련은 민주 시민을 육성하고자 하는 현대 교육에 있어서 민주주의 교육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동맹 수련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도산은 민족적 사업을 단체 사업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믿

고, 독창적인 교육 방법으로 동맹 수련법을 창안하여 흥사단과 공립협회 및 학교 교육에서 활용하였다. 도산이 제창한 동맹 체조, 동맹 독서, 동맹 작업 등 동맹 수련의 방법은 공동체적 삶의 체험을 통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 현대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오늘날의 교육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으로 흘러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는데 동맹 수련의 방법을 교육 현장에 다양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3. 민족 주체 사상의 의미

민족 주체 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누어 기술하려고 한다.

첫째, 민족 주체 의식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해방 후 우리의 교육은 서구의 교육에 집착한 나머지 국적 없는 교육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변화와 개혁을 수없이 추구했지만 우리의 주체성을 가지고 하지는 못했다. 주체성이란 내가 나의 주인임을 인식한 마음의 상태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력을 의미한다. 도산은 우리 민족이 주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주체 정신이 강한 민족으로 개조하고자 주인 정신을 기르자고 했다. 도산이 주창한 주인 정신의 의미는 독립 정신이요, 책임 정신이요, 주체 정신이다. 도산은 민족에 대한 명목상의 주인이 되지 말고 실제상의 주인이 될 것을 강조하였다. 즉 대한 사람인 우리는 대한의 일에 충성과 다함과 동시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참 주인이 되자고 역설하였다. 도산이 이와 같은 민족 주체 의식의 배양을 강조한 것은 자주적인 자아 의식이 투철한 자주적인 인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 교육과 합치되는 교육관이다.

둘째, 인간의 자기 회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도산은 주인 정신에서 역사에 대한 책임 의식을 주로 강조하고 인간이 자기 자신의 주인임은 덜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은 인간이 산업 사회의 발전이나 경제 성장의 수단이 되고 교육이 이 같은 발전, 성장을 위한 청부적, 기능적 역할로 전락되기 쉬운 시대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 인간의 자기 회복도 역사에 대한 책임 의식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다. 프롬은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도덕적 병폐를 ‘인간의 자신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진단하고 인간이 이렇게 된 이유로 개성 상실, 수단화, 상품화, 소

외, 무기력, 꿈의 상실, 탈양심, 결단성 결여, 순응 등을 들면서 이러한 사실의 인식에 터한 문화의 개조를 부르짖고 있다.<sup>142)</sup> 바로 이런 발상에 근거해서 도덕적 병폐를 교육을 통해 치유해서 인간이 자기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조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도산 교육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고찰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

142) 김정환(1986), “도산 교육사상의 발전적 계승책”, 「도산 사상 연구」, 제1집, 홍사단 출판부, p.152.

## V. 결론

도산 안창호는 근대 우리 민족의 수난기에 태어나서 60평생을 민족과 함께 한 뛰어난 선각자였다. 도산은 일생을 민족 독립 운동에 바친 애국적 정치가이며, 국민 교화와 계몽에 헌신한 성실한 교육자이고, 민족 개조 사상, 힘 사상, 민족 주체 사상 등을 제시한 뛰어난 사상가이며, 성실한 자세와 정직한 마음씨를 지녔던 인격적 민족 지도자였다.

본 연구는 민족의 선각자이며 성실한 교육자였던 도산 안창호의 생애와 활동을 통해 교육사상과 현대적 의미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도산의 교육사상이 형성되는 데는 시대적인 상황이나 사조들이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쳤다. 양계초와 유길준을 통해 받아들인 사회진화론은 도산의 교육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고, 도산에게 형성되어진 민족 사상은 교육을 통해 힘을 기르려 하던 민족 교육의 이상으로 발전하였으며, 기독교 사상의 영향으로 도산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삶을 살면서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강조하였다. 또한 유교 사상과 근대 서구 사상을 접하고서 민족에 대한 애정을 더욱 갖게 되었다.

도산 교육사상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성실주의, 인본주의, 자력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이다. 참되기를 힘쓰자는 성실주의와, 사회 개조의 출발은 인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인본주의는 민족 개조 사상의 기초가 되었고, 우리가 바랄 것은 나 자신의 '힘'이라고 하는 자력주의는 힘 사상의 기초가 되었으며, 도산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는 민족 주체 사상의 기초가 되었다.

도산은 일생동안 세 개의 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단체를 만들어서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을 통해 훌륭한 인격을 지닌 인물을 기르려고 하였다. 도산의 교육사상인 민족 개조 사상, 힘 사상, 민족 주체 사상을 고찰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 개조 사상이다. 민족 개조 사상은 우리 민족을 능력 있는 민족으로 만

들기 위해 자기 자신부터 개조하여 민족 전체를 개조하자는 것이다. 도산은 우리 민족성의 개조를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 무실·역행·충의·용감의 4대 정신을 제시하였다. 무실은 참(진실, 성실) 되기를 힘쓰자는 것이며, 역행은 행하기를 힘쓰자는 것이며, 충의는 일에 충성하고 사람에게 대해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며, 용감은 옳은 일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돌진하여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참고 견디는 자세와 기백을 기르라는 것을 가리킨다. 도산은 민족 개조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점진학교, 대성학교, 동명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둘째, 힘 사상이다. 도산은 민족 부흥의 핵심은 ‘힘’을 기르는 것이라 했다. 힘을 기르기 위한 원리로 건전 인격의 형성과 공고한 단결의 2대 원리를 제시했고, 그 바탕 위에 민족 3대자본 축적을 강조하였다. 건전 인격 형성을 위한 인격 훈련의 내용으로 도덕적 품성, 튼튼한 몸, 자주적 직업인 등 덕·체·지의 三育을 강조했다. 공고한 단결을 이루기 위한 확고한 방법론으로 공통의 목표와 공통적 신용을 세우며, 서로 사랑하고 돕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훈련 방법을 제시했다. 민족 3대자본 동맹 저축은 금전의 자본, 지식의 자본, 신용의 자본을 저축하되 같이 협동하고 동맹해서 저축하자는 방법론이다. 도산은 민족의 힘을 기르기 위한 단체인 흥사단을 조직하고 지도하였다.

셋째, 민족 주체 사상이다. 도산의 민족 주체 사상은 독립 정신이며, 책임 정신이고, 민족에 대한 실제상의 주체가 되자는 사상으로서 주인 정신을 의미한다. 진정한 민족의 주체 의식을 확립하자는 것이다. 도산은 민족 주체 사상을 일깨우고, 기르기 위해 독립협회, 공립협회, 신민회, 대한인국민회 등의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에서 활동하였고 수년동안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도 일하였다.

도산의 교육사상을 토대로 현대적 의미를 모색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민족 개조 사상의 현대적 의미이다. 민족 개조 사상은 앞으로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 학교 교육에서 정직성을 재인식해야 한다는 의미, 노작 교육과 가치관 정립을 강조하는 의미, 술선수범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둘째, 힘 사상의 현대적 의미이다. 힘 사상은 현대 교육에서 전인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와 교육을 통해서 민주 시민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미, 동맹 수련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셋째, 민족 주체 사상의 현대적 의미이다. 민족 주체 사상은 민족 주체 의식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미와 인간의 자기 회복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결론적으로 도산은 서구 열강과 일본으로 인한 대외적인 도전과 대내적인 분열 및 부패에 휩싸였던 조선 말기의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태어나 조국을 구하고 독립을 성취하고자 민족을 위해 살다가 민족을 위해 몸 바쳤다. 도산의 교육사상은 그의 경험과 직관, 사색과 관찰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민족과 국가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결합하면서 사상으로서의 생명력을 얻게 되었다.

도산은 자기의 교육사상을 실천해서 실천에 옮긴 겨레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산은 따뜻한 인간애와 합리적 실천을 통한 숭선수범의 지도자였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교육에는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다. 입시 제도와 전인교육의 조화 문제, 교육 주체들 간의 갈등의 문제, 획일주의 교육의 문제, 제도권 교육의 경쟁력 문제(내실화 문제) 등이 그것이다. 민족적으로는 '민족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분단 극복의 문제도 남아 있다. 이러한 때에 도산 교육사상의 현대적 의미는 일선 교육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단행본>

- 강기수(1998), 「교육사상사」, 세종출판사.  
\_\_\_\_\_ (2002), 「교육의 역사와 사상」, 세종출판사.  
김경일 외(2003), 「한국 사회 사상사 연구」, 나남출판.  
김기석(1970), 「남강 이승훈」, 세운문화사.  
김선양(1999), 「한국 교육사상사」, 양서원.  
도산기념사업회(1953), 「도산 안창호」, 도산기념사업회.  
도산사상연구회 편(1986), 「도산 사상 연구」 제1집, 홍사단출판부.  
\_\_\_\_\_ (1995), 「도산 안창호의 사상과 민족 운동」, 학문사.  
문형만(1987), 「교육사상이 평전」, 교육연구사.  
변태섭(2002), 「한국사 통론」, 삼영사.  
서영훈(1983), 「도산 안창호」, 홍사단출판부.  
\_\_\_\_\_, 「홍사단 운동 70년사」, 홍사단출판부.  
손인수(1985), 「한국 개화 교육 연구」, 일지사.  
신용하(1994), 「한국 근대의 선구자와 민족 운동」, 집문당.  
\_\_\_\_\_ (1986), 「한국 민족 독립 운동사 연구」, 을유문화사.  
안병욱(1972), 「도산 사상」, 삼육출판사.  
안성결(1996),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 한국문화사.  
오천석(1973), 「발전 한국의 교육 이념 탐구」, 배영사.  
윤병석(2002), 「민족 수난의 지도자 도산 안창호」, 도산사상연구회.  
이광린(1979), 「한국 개화 사상 연구」, 일조각.  
이광수(1998), 「도산 안창호」, 홍사단출판부.  
임중빈(1992), 「도산 안창호」, 명지사.

장리욱(1970), 「도산 안창호」, 태극출판사.  
 \_\_\_\_\_, 「도산 안창호-현대 한국 인물 전집Ⅳ」, 태극출판사.  
 \_\_\_\_\_, 「도산의 인격과 생애」, 대성문화사.  
 전영택(1967), 「도산 안창호 선생」, 대한기독교 계명협회.  
 조용만 외(1970), 「일제 문화 운동사」, 민중서관.  
 주요한 편(1999), 「안도산 전서」, 홍사단출판부.  
 주요한(1982), 「안창호전」 삼중당.  
 홍사단편찬위원회 편(1964), 「홍사단 50년사」, 대성문화사.

<논문>

고재신(2001), “도산의 교육사상과 그 계승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신일(1993), “식민 통치하의 도산의 교육 운동”, 「도산 사상 연구」, 제2집, 연구사.  
 김연희(1996), “도산 안창호의 교육사상과 교육 실천”,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재명(1986), “도산 안창호의 민족 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정환(1986), “도산 교육사상의 발전적 계승책”, 「도산 사상 연구」, 제1집, 도산사상연구회.  
 김충현(1972), “도산 안창호의 교육사상”, 「공주교육대학교 논문집」, 제9집, 공주교육대학교.  
 김태길(1993), “오늘의 시점에서 도산을 되돌아 본다”, 「도산 사상 연구」, 제2집, 연구사.  
 박명규(1993), “도산의 민주적 조직론”, 「도산 사상 연구」, 제2집, 연구사.  
 박의수(1993), “도산 안창호의 4대 정신 연구”, 「제8회 도산사상연구회 발표논문」, 도산사상연구회.  
 \_\_\_\_\_(1997), “21세기 한국의 인간상과 도산 사상”, 「도산 사상 연구」, 제4집, 도산사상연구회.

- 배순근(1994), “도산 주인 사상의 재조명”, 도산사상연구회 발표회 논문.
- 서영훈(1984), “영원한 겨레의 스승 도산 안창호”, 「스승의 길」, 서울특별시교  
육위원회.
- 손봉호(1983), “도산의 윤리 사상과 21세기 홍사단 운동”, 「21세기 홍사단 운동  
의 방향과 과제」, 홍사단.
- 안병욱(1976), “기독교와 민족 사상”, 「송실대논문집」, 제19호, 송실대학교.
- \_\_\_\_\_ (1991), “도산 사상과 상허 사상”, 「도산 학술 논총」, 제1집, 도산아카데  
미연구원.
- 양호민(1993), “도산 정치 사상의 현대적 구현”, 「도산 사상 연구」, 제2집, 연구  
사.
- 유재천(1993), “도산 사회 사상의 현대적 구현”, 「도산 사상 연구」, 제2집, 연  
구사.
- 이석희(1993), “도산의 시민 사회 운동론”, 「도산 사상 연구」, 제2집, 연구사.
- 장규식(2000), “도산 안창호의 민족주의와 시민 사회론”, 「도산 사상 연구」, 제6  
집, 도산사상연구회.
- 장을병(1970), “도산 안창호의 정치와 사상”, 「도산 사상 연구」, 제1집, 홍사단  
출판부.
- \_\_\_\_\_ (1993), “도산의 민주주의”, 「도산 사상 연구」, 제2집, 연구사.
- 한기연(1993), “변혁기의 개혁 운동과 도산 사상”, 「도산 사상 연구」, 제2집, 연  
구사.

<연설, 서한>

- 안창호, “동지에게 주는 글-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 주요한 편, 「안도산  
전서」, 홍사단출판부.
- \_\_\_\_\_, “동지에게 주는 글-오늘 할 일은 오늘에”, 홍사단출판부.
- \_\_\_\_\_, “동지 제위에게”, 홍사단출판부.
- \_\_\_\_\_, “동포에게 고하는 글-당신은 주인입니까”, 홍사단출판부.
- \_\_\_\_\_, “동포에게 고하는 글-부허에서 떠나 착실로 가자”, 홍사단출판부.
- \_\_\_\_\_, “동포에게 고하는 글-우리 민족 사회에 대하여 불평시 하는가, 측은시

하는가”, 홍사단출판부.

\_\_\_\_\_, “동포에게 고하는 글-합동과 분리”, 홍사단출판부.

\_\_\_\_\_, “청년에게 부치는 글-대한 청년의 용단력과 인내력”, 홍사단출판부.

\_\_\_\_\_, “청년에게 부치는 글-청년에게 호소함”, 홍사단출판부.



<Abstract>

**Consideration of the Educational Philosophy and Modern  
Significancy of Dosan An, Chang-ho**

Choi, Chang-beom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an, Seok-ji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Dosan An, Chang-ho was born in 1878. He is a patriotic statement who lived for the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and also a sincere educator who devoted his life to the education and enlightenment of Korean people. He is also a great thinker who gave people a reconstructive mind and a Korean national leader to have sincere attitude and honest mind. The core of these various activities Dosan did through his life is an education. He was a practical educator who helped people to reform by themselves, made people strong, and be independent to construct an independent country for ourselves through an education.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Education in August, 200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 modern significancy of Dosan An, chang-ho who is a man of foresight in korean modern education.

To get this purpose, we choose methods of literature review with the works of Ju, Yo-han, Lee, Gwang-su, Jang, Ri-uk etc. who were Dosan's pupils and his own lectures and letters as the first materials and some books and articles related to Dosan as the second materials.

This thesis is composed as the followings to investigate the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 modern significancy of Dosan An, chang-ho through Dosan's life.

The I chapter presents the necessity, purpose and methods of this study.

In the II chapter, we investigate the background of the times when he lived, the background of his thought and the foundation of it as the basement for forming Dosan's Educational Philosophy .

In the III chapter, we present and look through Dosan's Educational Philosophy which consists of three parts, that is, korean's reconstruction philosophy, power philosophy and the spirit of Korean people's independence.

These are the background and bases for the forming of Dosan's Educational Philosophy.

In the IV chapter, we investigate the significancy Dosan's educational

ideology in modern times.

In the V chapter, as the conclusion part, we adjust the results investigating the Dosan's educational philosophy and modern significancy.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on the Dosan's educational Philosophy and modern significancy of his thought investigated by the above procedure can be presented like the followings.

First, self-reconstruction philosophy. The self-reconstruction philosophy means that all Korean people can be reconstructed by reforming and training themselves. Dosan presented the four spirits of the true, faithful, honest and genuine for reconstructing the Korean nationality. The self-reconstruction philosophy of Dosan has much implicative meaning that it presented the right direction in that Korean education must progress in the future, that honesty must be reconsidered in the school education, a pre-vocational education and a view of value must be emphasized and that one must live and lead one's life for oneself on the basis of one's own initiative.

Second, power philosophy. Dosan indicated that the core of Korean People's prosperity and eternal development is to foster the power. He pointed out two kinds of the principle - forming sound personality as a moral character and a healthy body and raising cooperative spirits - as the principles to strengthen the national power.

He emphasized to save the national three capitals on the base of the

principles. It has the meanings that the modern education must pursue an education for the whole person, that a democratic citizen is to be reared through education , and cooperative spirits must be fostered through a sort of alliance training.

Third, national self-reliance. Dosan's national self-reliance is the integrity for independence,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our nation and a spirit of mastership that we should be the master of Korea, that is, it means the sovereignty. It tells us to stand firmly on a true national self-reliance spirit. Dosan's national self-reliance spirit has an important meaning that the national self-reliance spirit should be emphasized and we shoul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human self-recovery.

Nowadays, our education has many problems to be solved. In this time, a modernistic point of view about Dosan's thoughts about education can be considered as that it will be able to provide many important thing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in the education fields.